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 2024. 11 |

KOSME
이슈포커스

01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
	요약	2
	설문조사 개요	4
	조사 결과 분석	6
	정책적 시사점	19

02	현장 인터뷰	24
-----------	---------------------	-----------

03	주요국 중소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29
-----------	---------------------------------	-----------

설문조사지 및 조사결과표

Chapter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요약

구분	내용
<p>① 경영 현황 및 자금 사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中企 경영 상황 : 중소기업 체감경기 하락과 도소매 등 업종 회복력 둔화 우려 - 악화 40.2% > 호전 36.2% > 동일 23.6% • '25년 中企 경영실적 예상(전년비) : 주력품목 3Q 수출 성장세에 경기회복 모멘텀 기대 - 매출 변동 : 증가 57.2% > 감소 25.2% > 동일 17.6% - 수출 변동 : 동일 68.6% > 증가 23.4% > 감소 8.0% - 고용 변동 : 증가 49.4% > 동일 36.2% > 감소 14.4% • 中企 자금사정은 약 10곳 중 5곳(45.6%)이 '악화', '판매부진(36.0%)'이 주요 원인 - 전년도 응답과 비교하면, 자금사정 개선체감 정도가 소폭 증가(+4.5%p)하였으나,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체감하는 경기 위축이 비교적 심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20.6%)' > '원부자재 가격 상승(18.0%)' > '대출상환 요구(9.2%)' 순 언급 • 中企 10곳 중 7곳(69.0%)이 기계 등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25.1Q 투자 계획 중인 곳'이 44.3% 투자요인으로 '거래업체 납품 물량 증가' 응답이 가장 많음 - 투자자금으로 평균 21억 필요 예상, 응답기업의 60.9%가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희망
<p>② 중소 기업 정책 자금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企 정책자금은 '원부자재 조달(42.4%)', '매출액 향상(35.1%)'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과 원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이어 인건비 조달(18.5%) > 설비 구입(14.3%) > 사업장매입(11.0%) 순으로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있음 - 응답기업의 10곳 중 3곳 이상은 기업의 재무와 기업신용 개선에 도움이 되는 '매출액 증대' 효과를 가장 높이 평가했으며, 이어 생산기반 확충과 사업 확장 등을 주로 언급함 • 中企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금융 지원 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91.8%)'이며, 예산 증액 요구도 '직접대출(88.8%)'이 대다수, 신산업 스타트업은 '성장공유형' 증액 희망 - 정책자금의 장점으로 '장기 대출 기간(52.2%)', '민간금융권보다 낮은 대출금리(37.2%)' 언급 • 규모, 업력, 업종 구분 없이 '성장기(49.8%)'에 정책자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다만, 매출 50억 미만 기업은 '창업기에,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은 '재도약기에 다른 성장단계 대비 정책자금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p>③ 정책 자금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업 10곳 중 9곳이 우량기업 용자제한 적정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기준이 적정하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우량기업 지원제한의 예외 사유로는 일시적 경영애로(44.6%) > 고용수출매출 성과창출(22.4%) > 시설투자 계획 중 기업(21.8%) > 스케일업 지원(11.2%) 순으로 조사됨 • 대리대출 자금지원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68.6%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대리대출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창구 일원화 및 주담보를 활용한 추가 은행대출 활용(55.7%)'으로 나타남

4
정책적
시사점

- 중소기업은 '25년 신규 사업인 '마일스톤 방식의 정책자금 프로그램' 필요성에 공감(85.2%)하고 있으며, 他 민간·유관기관과 중진공의 연계사업 도입이 필요(87.0%)하다고 응답

*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진공과 소진공이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내수부진, 美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고, 매출·수출 회복에 기여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은 긴 대출기간,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조달이 가능하다는 정책자금의 특성을 가장 선호
 -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융자지원 체계 운용 필요
- '25년 상반기 기계 설비 중심 시설투자를 예정 중인 기업이 다수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필요
 - 시설·설비투자는 전후방 산업의 투자·고용 효과와 기업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에 큰 영향
 - 기업의 시설투자 계획에 대응하여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설투자수요 집중 시기에 자금을 적기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 투입 필요
- 중진공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매출액 향상과 고용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현행 장기·저리 중심의 장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효과성을 높여갈 필요
 - 창업초기 기업지원, 기술·사업성평가를 통한 유망기업 발굴, 장기 시설투자 자금 지원 확대, 초기 스케일업 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 등 민간금융 소외영역 중심 역할 강화 필요
- 기업이 선호하는 '직접+대리대출'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제공 필요
 - 중소기업은 보증 및 이차보전 방식보다 직접융자(직접/대리)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 선호
 - 중소기업이 투자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모·업종·성장단계별 맞춤형 융자 지원 필요
- 현장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금융권 대출 이차보전 사업과 정책자금 융자 간 자원 배분 필요
 - 시장실패의 보완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이차보전 방식을 재점검하여 정책자금 융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 필요
- 창업기, 성장기 중소기업 중심 자금 수요에 따라 적절한 성장단계별 자원 배분 및 공급 필요
 - 기술력 확보가 필요한 창업초기 기업 육성, 성장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경영애로기업 재도약 및 정상화지원 등을 통해 전주기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지원 필요
- 일시 애로/성과창출/시설투자 기업에는 정책자금 우량기업 융자제한 예외 적용 필요
 - 위기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성과창출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업 융자제한 완화 필요
- 정책목적성과 기업 니즈를 고려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병행 운영 필요
 - 대리대출 방식 병행 등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선택권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서비스의 효과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사업 지속 추진 필요
 - 올해 신규 도입한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 성과를 접목하여 내년에 추진될 '마일스톤 정책자금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높여 중소기업 경쟁력 및 산업의 밸류체인 강화 필요

0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중소벤처기업 경영현황 파악 및 정책자금의 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 도출**
 -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이 기업 금융애로 해소에 미치는 영향, 제도개선사항, 자금 추가소요 및 타 기관과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 조사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조사 대상	• 중진공 지원사업 참여기업 4,173개사
표본 규모	• 유효응답 기준 총 500개사
표본 오차	• 전체 95% 신뢰수준에서 $\pm 4.00\%p$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유선, SMS, Email 등 복합조사
조사 시기	• 2024. 10. 10. ~ 2024. 10. 17.
자료 처리	•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여 각 항목별 빈도분석, 교차분석
조사 기관	• (주)와이즈인컴퍼니

○ 조사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기업 일반현황	• 매출규모, 업종, 업력,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정책자금 이용여부 등
중소기업 경영현황 및 자금사정	• 전년 대비 중소기업 경영실태 • 전년 대비 '25년 매출, 수출, 고용 예상 • 시설 투자 계획(일정, 대상, 목적, 규모, 자원 조달 방식)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할	• 중진공 정책자금의 경영환경 개선 도움 여부 • 정책자금 용도 • 정책자금 효과 • 선호하는 정책금융 지원 방식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장 큰 장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확대 필요 분야 • 기업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예산확대 필요 시기
정책자금 제도개선	• 우량기업 용자제한 적정성, 우량기업 지원제한 예외 사유 •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 필요성 및 사유 •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 운용 필요성 • 중소기업 정책자금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

○ 응답자 특성

구 분		업체 수(개)	비율(%)
전 체		500	100.0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74.4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110	22.0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2.8
	이차보전	4	0.8
매출액	10억 미만	172	34.4
	50억 미만	177	35.4
	100억 미만	76	15.2
	300억 미만	61	12.2
	300억 이상	14	2.8
종업원 수	5인 미만	127	25.4
	10인 미만	124	24.8
	50인 미만	206	41.2
	100인 미만	27	5.4
	100인 이상	16	3.2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40.6
	5~10년 미만	113	22.6
	10~15년 미만	63	12.6
	15~20년 미만	30	6.0
	20년 이상	91	18.2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53.6
	10~50억 미만	173	34.6
	50억 이상	59	11.8
업종	제조업	347	69.4
	도매 및 소매업	49	9.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10.6
	기타	51	10.2

02 조사 결과 분석

1 중소기업 경영현황 및 자금사정

□ '23년 대비 '24년 경영 상황: 체감 경기 악화 40.2%, 호전 36.2%

- 응답 중소기업의 40.2%는 전반적인 경영 상황이 '악화' 되었다고 인지하는 한편, 경영 상황이 '호전' 되었다고 보는 응답은 36.2%인 것으로 조사됨
-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은 '경영 상황 악화'를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은 '경영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업력 5년 미만의 초기 기업은 '경영 상황 호전'을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업력이 높아질수록 '경영 상황 악화'를 체감**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악화' 체감**, 도소매업 및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작년 대비 '호전'되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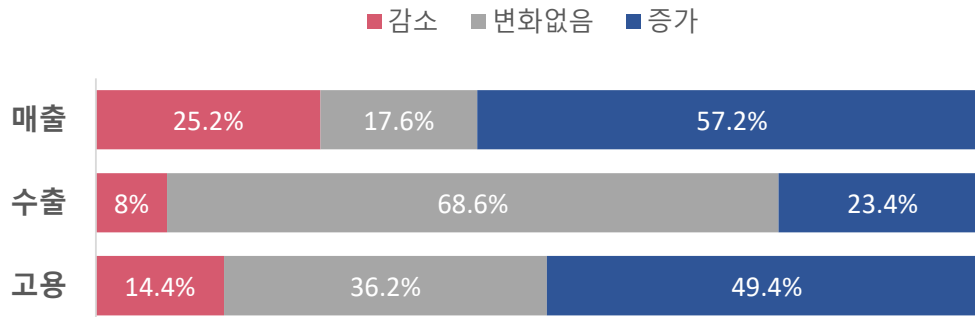
*'23년 대비 '24년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 [Base : 전체 응답](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매우 악화	다소 악화	동일	다소 호전	매우 호전	악화	호전	
■ 전체 ■	(500)	9.8	30.4	23.6	30.0	6.2	40.2	36.2	
매출액	10억 미만	(172)	11.6	29.7	19.8	30.8	8.1	41.3	39.0
	50억 미만	(177)	10.7	28.2	29.4	25.4	6.2	39.0	31.6
	100억 미만	(76)	10.5	32.9	19.7	34.2	2.6	43.4	36.8
	300억 미만	(61)	3.3	34.4	21.3	37.7	3.3	37.7	41.0
	300억 이상	(14)	0.0	35.7	28.6	21.4	14.3	35.7	35.7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8.9	23.6	22.7	36.0	8.9	32.5	44.8
	5~10년 미만	(113)	12.4	27.4	23.9	31.9	4.4	39.8	36.3
	10~15년 미만	(63)	12.7	31.7	27.0	27.0	1.6	44.4	28.6
	15~20년 미만	(30)	13.3	36.7	13.3	26.7	10.0	50.0	36.7
	20년 이상	(91)	5.5	46.2	26.4	17.6	4.4	51.6	22.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10.1	28.0	23.9	32.1	6.0	38.1	38.1
	10~50억 미만	(173)	11.6	31.8	23.7	26.6	6.4	43.4	32.9
	50억 이상	(59)	3.4	37.3	22.0	30.5	6.8	40.7	37.3
업종	제조업	(347)	10.1	32.9	24.8	26.5	5.8	42.9	32.3
	도매 및 소매업	(49)	4.1	26.5	20.4	44.9	4.1	30.6	49.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15.1	22.6	20.8	34.0	7.5	37.7	41.5
	기타	(51)	7.8	25.5	21.6	35.3	9.8	33.3	45.1

□ '25년 매출·수출·고용 변동 예상 결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전망

- 매출 변동 : 증가 57.2% > 감소 25.2% > 변화 없음 17.6%
- 수출 변동 : 변화 없음 68.6% > 증가 23.4% > 감소 8.0%
- 고용 변동 : 증가 49.4% > 변화 없음 36.2% > 감소 14.4%

'25년 매출·수출·고용 변동 예상 [Base : 전체 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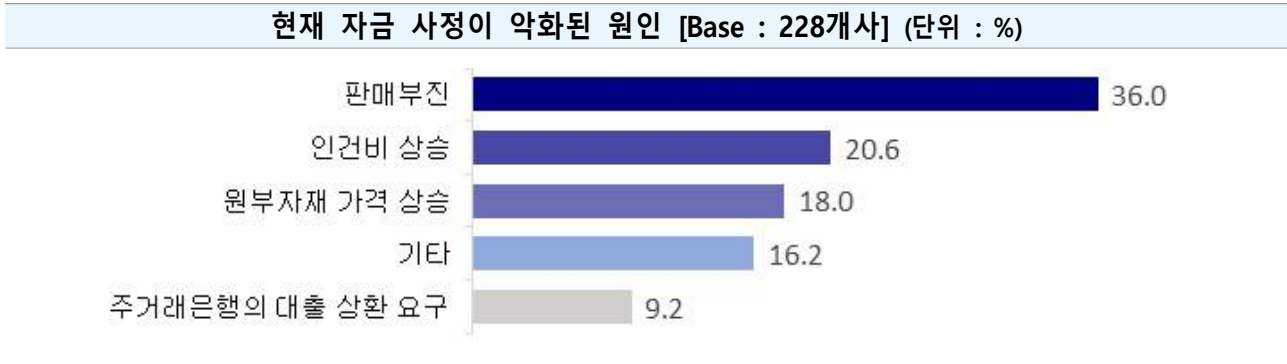
- 매출 증가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매출 10억 미만, 업력 10년 미만
- 수출 증가는 제조업, 매출 100~300억 미만, 종업원 50~100인 미만, 업력 15년 이상
- 고용 증가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매출 300억 이상, 업력 5년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美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지정학적 불안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답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내년도 매출/고용의 점진적 회복과 현재의 양호한 수출 흐름 유지 등 경기 호조세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 중소기업 중 자금사정이 호전되었다는 기업은 18.0%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사정 악화 양상

- 응답 중소기업 약 10곳 중 5곳(45.6%)에서 현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호전되었다는 기업은 18.0%에 그침
- 전년도 응답과 비교하면, 자금사정 개선체감 정도가 소폭 증가(+4.5%p)하였으나,
 - 매출이 크고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자금사정 악화응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체감하는 경기 위축이 비교적 심한 것으로 분석됨

□ 자금사정 악화 요인 : 판매 부진 > 인건비 상승 > 원부자재 가격 상승 順

-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금사정 악화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 부진'이 36.0%로 1위이고,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20.6%) > 원부자재 가격상승(18.0%) > 주거은행의 대출 상환 요구(9.2%)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응답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내수 부진, 채산성 저하 등이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인력난,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응답기업의 69.4% (500개사 중 347개사)

- 기타 응답에는 늘어난 자금수요 대비 부족한 조달 규모, 업황 부진과 관련된 응답이 많음
(금속기계·화공) 시설투자 및 설비증축, 사업다각화, 경기 악화, 대출금리 상승, 투자유치에 난관, 판매대금 미회수, 일감 부족 등
(유통·식품·섬유) 운임 이자비용 상승, 중국 경기 악화, 거래처 미정산 등
(전기·전자)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금액 감소로 인한 개발건수 감소 등
(정보기술) 공공지출 감소, 주거업체의 위기경영 전환으로 인한 발주규모 축소 등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기업의 46.9%가 자금난을 경험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경남 > 경북, 부산, 충북 > 대구, 대전·세종 순으로 자금 악화를 경험하고 있음

- 전년도 응답* 대비 '인건비 상승'을 자금악화 원인으로 보는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 및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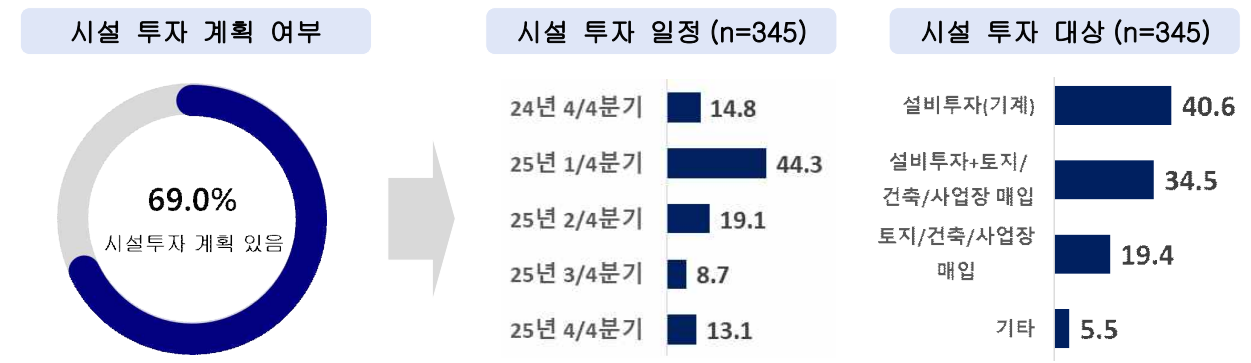
* (23년 자금사정 악화요인) 판매부진(35.7%) > 원부자재 가격 상승(23.9%) > 인건비 상승(12.2%) > 투자·매입으로 인한 일시적 악화(7.1%) > 주거은행 대출 상환 요구(5.5%) 등 順

2 시설 투자 계획

□ 中企 10곳 중 7곳(69.0%)이 시설투자 계획 “있음”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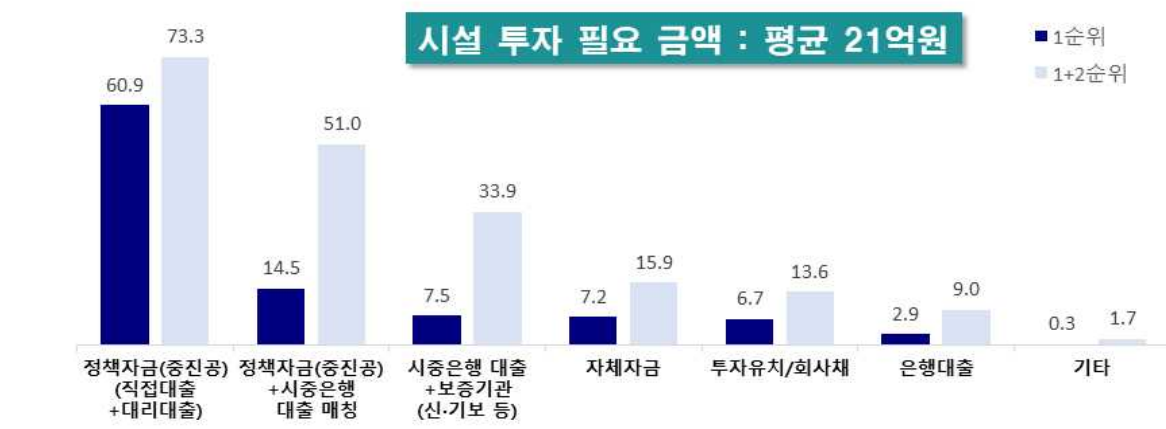
- 응답기업의 69.0%가 내년도 시설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매출액 300억 이상의 기업(78.6%)과 제조업종(73.8%)에서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시설투자 목적은 ‘납품 물량 증가 > 생산성 향상 > 디지털전환 > 탄소중립 대응’ 등이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영위 기업일수록 타 업종 대비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준비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투자 시기로는 절반(44.3%) 가량이 ‘25년 1/4분기로 예정, 시설투자 대상은 ‘설비투자(기계)(40.6%)’, ‘설비투자+토지/건축/사업장 매입(34.5%)’로 조사됨

향후, 中企 시설투자 계획 [Base : 500개사] (단위 : %)



- 한편, 시설투자 필요 금액은 평균 21억 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달 방식은 ‘정책자금(중진공 직접대출+대리대출)’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향후, 中企 시설투자 규모 예상 및 재원조달 방식 [Base : 345개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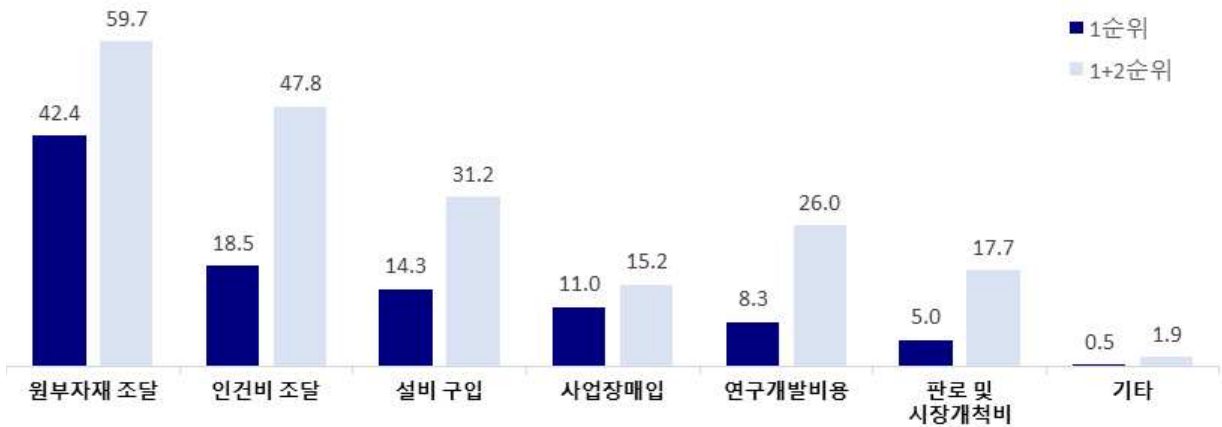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할

□ 중진공 정책자금,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 '96.2%', 주로 '원부자재 조달'에 사용

- 응답기업 대부분이 정책자금이 지원 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1.0%)들은 그 이유로, '지원규모가 작고 경쟁이 치열함, '거치기간이 짧고, 원금상환기간이 충분하지 않음' 등을 언급
-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주요 목적은 원부자재 조달(42.4%) 인 것으로 조사됨
 - 이어, 인건비 조달(18.5%) > 설비 구입(14.3%) > 사업장매입(11.0%) > 연구개발비용(8.3%) > 판로 및 시장개척비(5.0%) > 기타(0.4%) 순으로 나타남
 - 제조 및 도·소매업은 '원부자재 조달',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인건비 조달'에 정책자금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 제조업: (1순위) '원부자재 조달'(50.4%), (2순위) '설비 구입'(18.4%) 등
 - 도매 및 소매업: (1순위) '원부자재 조달'(46.8%), (2순위) '사업장 매입'(21.3%) 등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순위) '인건비 조달'(54.0%), (2순위) '연구개발 비용'(24.0%) 등

정책자금 활용 부문 [Base : 481개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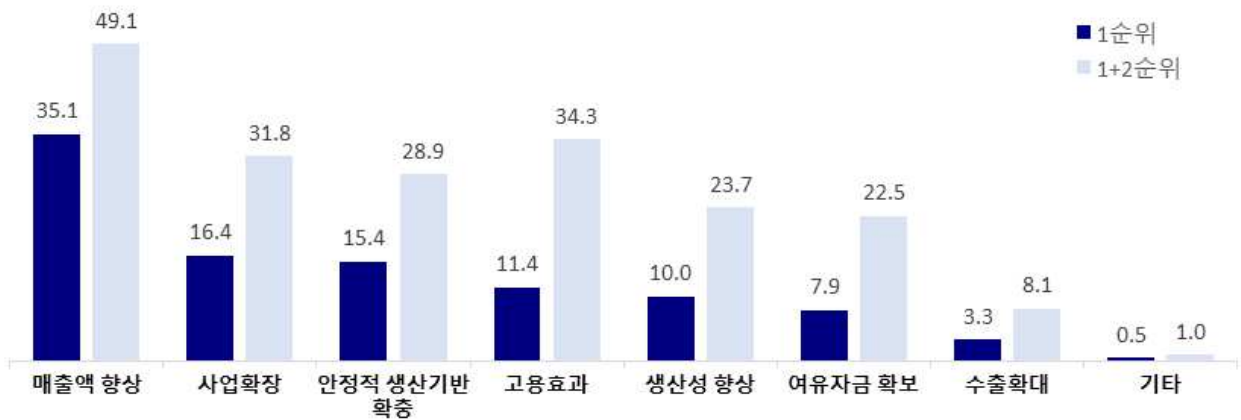


- 1+2 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원부자재 조달(59.7%) > 인건비 조달(47.8%) > 설비 구입(31.2%) > 연구개발비용(26.0%) > 판로 및 시장개척비(17.7%) > 사업장매입(15.2%) 順
- 1순위 응답과 달리 '연구개발비용'에 지출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출 규모가 작고 업력이 10년 미만,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가 10억 미만인 창업 초기 소규모 기업이 제품개발 등 연구개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의 효과: 10곳 중 4곳 이상은 '매출액 향상 및 고용 증대' 효과 체감

- 응답 중소기업의 35.1%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성 개선에 정책자금이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응답
 - 이어, 사업 확장(16.4%) >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15.4%) > 고용창출 효과(11.4%) > 생산성 향상(10.0%) > 여유자금 확보(7.9%) > 수출 확대(3.3%) 순으로 조사됨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 평가 [Base : 481개사] (단위 : %)



- 금융기관 대출금이 50억 이상으로 조달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에 정책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은 주로 매출 향상(28.0%)과 고용 증대(26.0%) 측면에서 정책자금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음

*차입규모별, 업종별 정책자금 체감 효과 (1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매출향상	고용효과	수출확대	사업확장	생산성향상	여유자금확보	생산기반확충	기타
■ 전체 ■	(481)	35.1	11.4	3.3	16.4	10.0	7.9	15.4	0.4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53)	33.6	14.6	2.4	16.2	8.7	10.3	13.8	0.4
	10~50억 미만 (170)	35.9	7.6	4.1	19.4	8.2	6.5	17.6	0.6
	50억 이상 (58)	39.7	8.6	5.2	8.6	20.7	1.7	15.5	0.0
업종	제조업 (337)	37.1	8.0	3.3	14.8	11.9	6.8	17.5	0.6
	도매 및 소매업 (47)	40.4	14.9	6.4	25.5	2.1	6.4	4.3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	28.0	26.0	0.0	18.0	6.0	14.0	8.0	0.0
	기타 (47)	23.4	17.0	4.3	17.0	8.5	10.6	19.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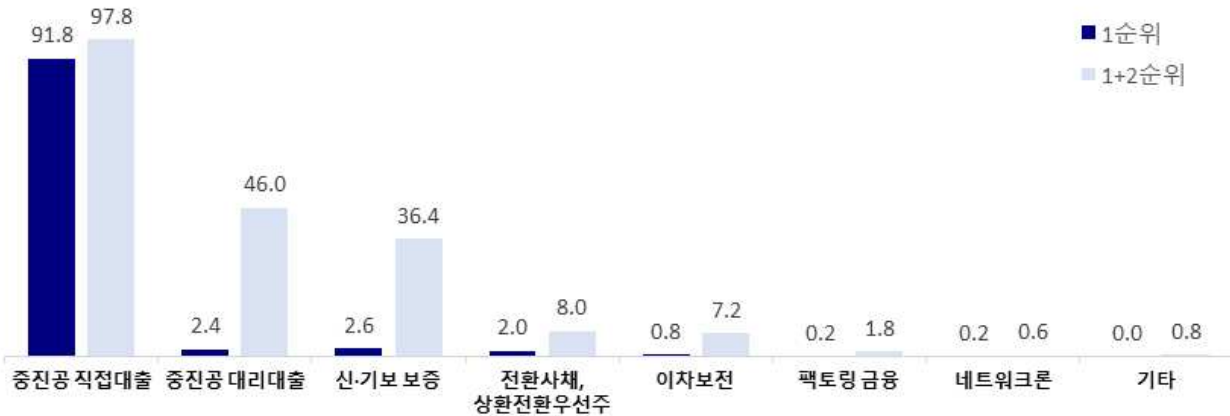
- 1+2 순위 응답 하에서는, 매출액 향상(49.1%) > 고용창출 효과(34.3%) > 사업확장(31.8%) >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28.9%) > 생산성 향상(23.7%) > 여유자금 확보(22.5%) > 수출 확대(8.1%) 순이며, 1순위 응답 기준과 달리 정책자금의 고용 증대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남

4 정책자금 지원 방식

□ 선호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1+2순위)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보증기관 활용 순

- 선호하는 정책자금 지원 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97.8%) > 중진공 대리대출(46.0%) > 신·기보 보증서(36.4%) >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8.0%) > 민간금융권 대출의 이차보전(7.2%)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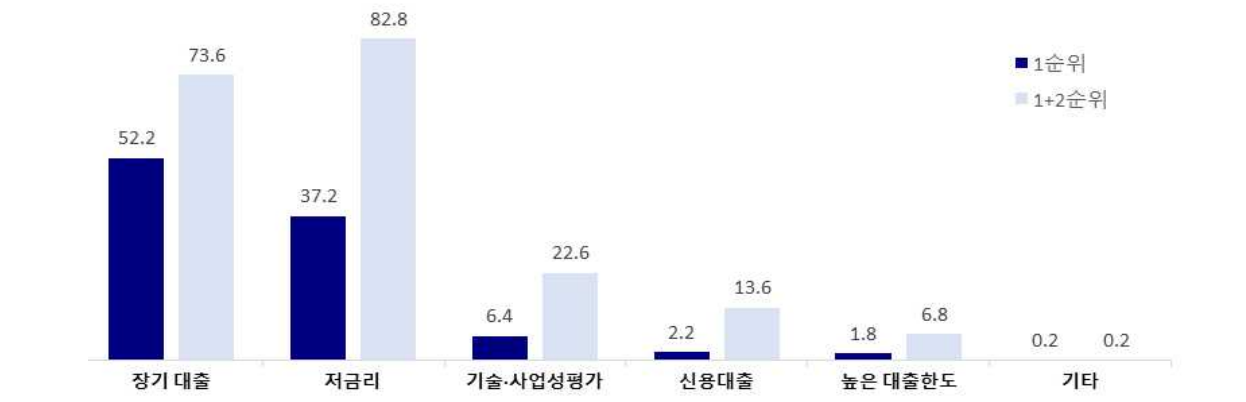
선호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방식 [Base : 500개사] (단위 : %)



□ 중진공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평가방법 등에서 긍정적 응답

-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정책자금의 장점으로, 1순위 응답 기준에서는 장기 대출 기간(운전 5년 시설 10년)(52.2%)을 가장 많이 언급함

중진공 정책자금의 장점 [Base : 500개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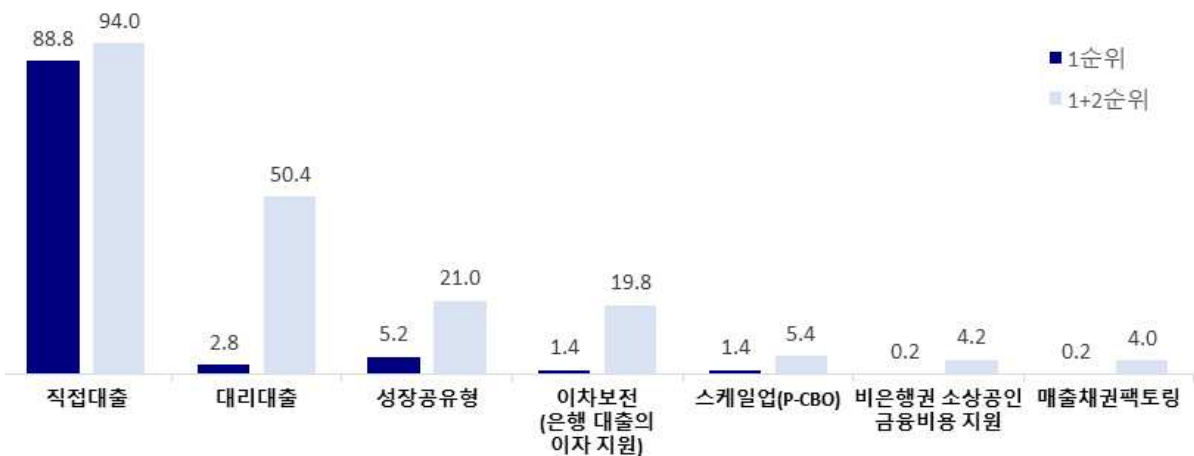
- 다음으로, 민간금융권 보다 낮은 대출금리(37.2%) > 재무평가가 아닌 기술·사업성 평가 체계(6.4%) > 신용대출(2.2%) > 민간금융권 보다 높은 대출한도(1.8%) 순으로 응답

- '재무평가가 아닌 기술·사업성 평가체계'라는 응답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9.4%), 업력 10년 미만(18.4%), 차입금 10억 미만(8.6%), 매출액 10억 미만(12.8%), 종업원수 5인 미만(10.2%) 기업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즉 담보력이 취약한 저신용의 소기업과 창업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경쟁력과 사업 역량 위주의 기업평가를 통한 융자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 (1+2순위) 응답에서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음으로, 장기 대출 기간(운전 5년, 시설 10년)(73.6%) > 재무평가가 아닌 기술·사업성 평가체계(22.6%) > 신용대출(13.6%) > 민간금융권 보다 높은 대출한도(6.8%) 순으로 응답

□ 예산 확대가 필요한 자금 지원 방식(1+2순위): 직접대출 94.0%, 대리대출 50.4%

- 중소기업은 예산 확대가 필요한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방식으로, 직접대출(94.0%) > 대리대출(50.4%) > 성장공유형(21.0%) > 이차보전(19.8%) > 스케일업(P-CBO)(5.4%) >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4.2%) > 매출채권팩토링(4.0%) 순으로 응답
- 업종별로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성장공유형(13.2%) 및 스케일업(7.5%)에 대한 예산확대 필요 응답이 타 업종 대비 높은 특징을 보였음

중진공 정책자금 중, 예산 확대가 필요한 자금지원 방식 [Base : 500개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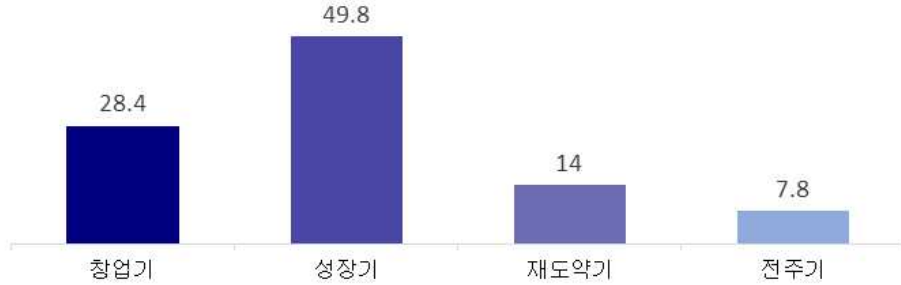
💡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방식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 인수
- 스케일업(P-CBO): 회사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 매출채권팩토링: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 후 조기 현금화 지원
- 이차보전: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 기업성장단계 중 '창업기 및 성장기'에 정책자금 예산확대 지원 필요

- 성장단계 중 예산확대가 필요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성장기(49.8%) > 창업기(28.4%) > 재도약기(14.0%) > 전주기(7.8%)** 순으로 응답

정책자금 예산확대가 필요한 시기 [Base : 500개사] (단위 : %)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및 전문기술서비스업은 '창업기 및 성장기', 도·소매업은 '성장기 및 재도약기' 예산 확대 필요 의견
 - 제조업: **성장기(50.7%) > 창업기(28.5%) > 재도약기(13.3%) > 전주기(7.5%)**
 - 도매 및 소매업: **성장기(46.9%) > 재도약기(26.5%) > 창업기(18.4%) > 전주기(8.2%)**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성장기(47.2%) > 창업기(28.3%) > 재도약기(15.1%) > 전주기(9.4%)**
-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재도약기 예산 확대를 요청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한계기업의 증가 등 경영애로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업력과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기 및 재도약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 성장기 예산확대 필요: 매출액 10억 미만(34.3%), **매출액 300억 이상(57.1%)**
 - 재도약기 예산확대 필요: 매출액 10억 미만(9.3%), **매출액 300억 이상(35.7%)**
-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창업초기 대비 양호한 자금동원력에 따라 **자금 리스크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기관 차입 규모가 증가할수록 '**성장기 및 재도약기**' 예산 증대를 선호
 - 차입금 규모 50억 이상의 기업은 **성장기(64.4%), 재도약기(23.7%)** 예산 확대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

*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별 정책자금 예산 확대 필요시기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전주기	
■ 전체 ■	(500)	28.4	49.8	14.0	7.8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41.0	41.8	9.3	7.8
	10~50억 미만	(173)	16.2	57.2	17.9	8.7
	50억 이상	(59)	6.8	64.4	23.7	5.1

5 정책자금 제도개선

□ 中企 정책자금 우량기업 용자 제한에 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수준 적정 하나, 제한 완화 필요' 하다는 응답이 다수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대상 용자 제한에 대해 '현재 수준 적정'과 '제한 완화 필요' 응답이 각 44.8%로 집계됨

中企 정책자금 우량기업 용자 제한에 대한 적정성 [Base : 500개사] (단위 : %)

■ 제한 완화 필요 ■ 현재 수준 적정함 ■ 제한 강화 필요



-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등 금융기관 차입 규모가 클수록 '제한기준 적정 및 완화', 차입 규모가 작을수록(10억 미만) '제한기준 강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다만, '23년 조사결과*와 비교 시 우량기업 용자제한 완화 필요 응답 비중이 증가(+13.1%p)한 것으로 볼 때, 기업 규모 및 자금조달능력과 무관하게 업계 전반의 자금소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완화 필요(31.7%), 현재수준 적정(51.5%), 강화 필요(16.8%)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동향 및 정책자금 수요 동향조사, '23.10월)

* 기업의 정책자금 이용여부 및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별 우량기업 용자제한 적정성 응답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제한 기준 완화 필요	현재 수준 적정함	제한 기준 강화 필요	
■ 전체 ■	(500)	44.8	44.8	10.4	
업력	5년 미만	(203)	38.4	47.8	13.8
	5~10년 미만	(113)	48.7	41.6	9.7
	10~15년 미만	(63)	50.8	41.3	7.9
	15~20년 미만	(30)	50.0	46.7	3.3
	20년 이상	(91)	48.4	44.0	7.7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39.9	47.4	12.7
	10~50억 미만	(173)	50.3	41.6	8.1
	50억 이상	(59)	50.8	42.4	6.8

💡 용자제한기업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적용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응답 기업 중 절반가량(44.6%)이 일시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

- 우량기업 용자제한의 예외 사항으로, **일시적 애로를 겪는 우량기업 지원(44.6%)**
 > 성과창출(고용·수출·매출) 우량기업 지원(22.4%) > 시설투자 계획 중인 우량기업 지원(21.8%) > 우량기업의 스케일업 지원(11.2%) 순으로 나타남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예외 조건 [Base : 500개사] (단위 : %)



- 업력/매출액/차입금 규모가 크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일수록 시설투자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설투자를 계획 중인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예외에 동의
- 이와 반대로,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이거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의 경우 성과창출(고용·수출·매출)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예외를 선호하는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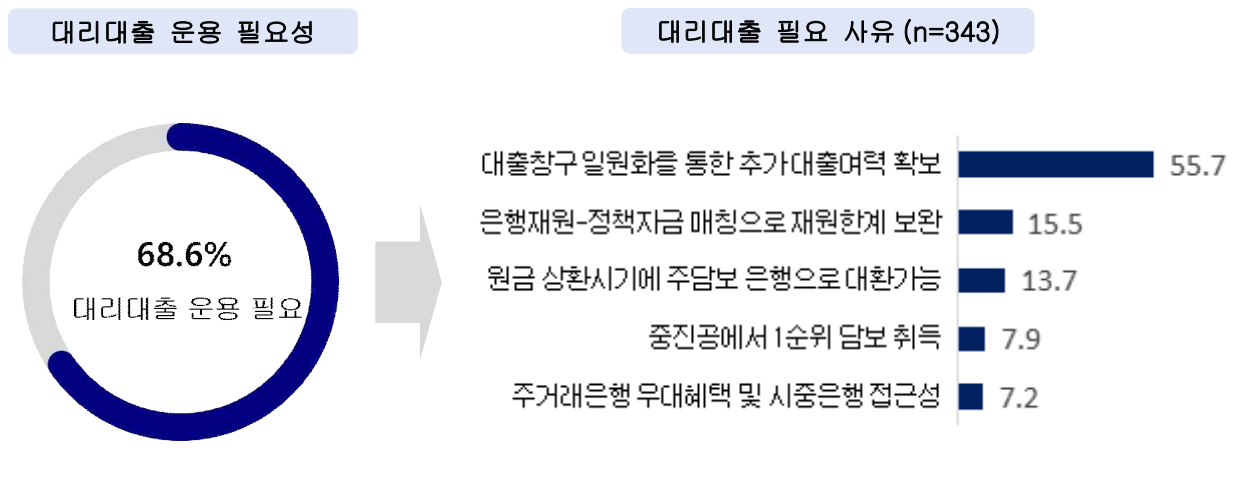
*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예외 조건 응답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스케일업 지원	시설투자 지원	일시애로 지원	성과(고용·수출·매출)	
■ 전체 ■	(500)	11.2	21.8	44.6	22.4	
매출액	10억 미만	(172)	15.7	18.6	45.3	20.3
	50억 미만	(177)	9.6	22.0	42.4	26.0
	100억 미만	(76)	3.9	22.4	55.3	18.4
	300억 미만	(61)	13.1	24.6	41.0	21.3
	300억 이상	(14)	7.1	42.9	21.4	28.6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11.3	24.1	43.3	21.2
	5~10년 미만	(113)	15.9	14.2	38.1	31.9
	10~15년 미만	(63)	6.3	25.4	57.1	11.1
	15~20년 미만	(30)	6.7	30.0	36.7	26.7
	20년 이상	(91)	9.9	20.9	49.5	19.8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14.9	19.8	42.9	22.4
	10~50억 미만	(173)	6.4	24.3	46.2	23.1
	50억 이상	(59)	8.5	23.7	47.5	20.3
업종	제조업	(347)	11.0	24.8	44.1	20.2
	도매 및 소매업	(49)	10.2	20.4	44.9	24.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15.1	9.4	49.1	26.4
	기타	(51)	9.8	15.7	43.1	31.4

□ 中企 10곳 中 7곳,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이 '지속 필요'하며, 절반 이상이 '대출창구 일원화를 통해 추가 대출여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 긍정적 의사

- 응답 기업의 68.6%는 정책자금 지원방식 中 대리대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담보를 활용한 추가 은행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가 50억 이상(72.9%)이거나 도소매 업종(83.7%)일수록 대리대출 방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
 - 대리대출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 대출금 확보 및 원금상환 이연효과 등과 관련된 응답이 많음

정책자금 대출방식 중 대리대출 운영 필요성 및 사유 [Base : 500/343개사] (단위 : %)



- 한편, 원금상환 도래 시 주담보 취득 은행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은 창업 초기(17.4%)의 소규모 기업(20.0%) 혹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13.9%)에서 긍정적으로 인식

💡 정책자금 대리대출

-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며, 시설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운용되며 담보활용 편의 제공,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 재원한계 보완, 기업 편의 제고 등의 장점 보유

* 중진공 직접대출과 대출기관 및 금리 등 대출조건은 동일

□ 성장사다리(소상공인→소기업 중소→중견) 구축을 위한 「마일스톤 정책자금 프로그램」 사업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음

-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에 긍정 표현
 -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은 전체 대비 **+3.8%**의 응답률(89.0%)을 보였으며, 매출액 300억 이상 기업은 전체 대비 **△13.8%**의 응답률(71.4%)을 보임

* 「마일스톤 방식의 정책자금 프로그램」 필요성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부정	긍정	
■ 전체 ■	(500)	1.4	85.2	
매출액	10억 미만	(172)	2.3	89.0
	50억 미만	(177)	0.0	84.2
	100억 미만	(76)	0.0	85.5
	300억 미만	(61)	3.3	80.3
	300억 이상	(14)	7.1	71.4

‘마일스톤 정책자금 프로그램’ 사업 필요성 [Base : 500개사] (단위 : %)



- 💡 마일스톤 정책자금 (성장사다리 자금) 프로그램 (25년 시행 예정)
 - 유망 소상공인 대상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소진공·중진공이 연계하여 이어달리기 자금 지원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소진공 전용자금(최대 2억원 지원 → 소기업으로 성장時 중진공 정책자금(최대 5억원 3회 분할) 지원

□ 他 기관(민간·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도입에 대한 의견: 도입이 필요함(87.0%)

- 응답 기업 중 87.0%는 민간·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올해 신규 도입한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 「개발기술 R&D 이차보전 사업」 사업성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타 기관(민간·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도입 필요성 [Base : 500개사] (단위 : %)



-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 '23.12.31일 기준, 중소기업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차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된 사업

03

정책적 시사점

1 중소기업 경영현황 및 자금사정

○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내수부진, 美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中企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출·수출 회복세 기여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필요

- 최근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은 전년도 실적의 기저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부진한 내수로 인해 기업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양상을 보임
- 대외적 측면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中企 수출 위축 및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 수출 감소 전망과 함께, '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KDI)로 하향 조정, '25년 전망치도 2.0%(KDI)로 조정
- 불확실한 경기변동 상황이 中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도록, 수출기업에 글로벌 역량 및 판로 다양성 확보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 등 필요

○ '25년 상반기 기계 설비 중심 시설투자를 예정 중인 기업이 다수로, 中企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강화 필요

- 설문 결과, '24년 대비 '25년 경기전망 관련 '매출·수출·고용 신장' 기대
 - 매출 변동 : 증가 57.2% > 감소 25.2% > 변화 없음 17.6%
 - 수출 변동 : 변화 없음 68.6% > 증가 23.4% > 감소 8.0%
 - 고용 변동 : 증가 49.4% > 변화 없음 36.2% > 감소 14.4%
- 이에 따라, 中企 10곳 중 7곳(69.0%)에서 시설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 44.3%가 '25년 1/4분기에 기계 설비 중심의 시설투자 추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시설·설비투자는 전후방 연관 산업의 투자·고용 효과는 물론 기업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기업의 시설투자 계획에 대응하여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시설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필요한 자금배분을 적기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 노력 필요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할

○ 중진공 정책자금은 中企 매출액 향상과 고용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장기저리 중심의 장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효과성을 높여갈 필요

-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금리·고물가 지속 영향으로 매출 감소, 인력 부족 등 부담이 가중된 상황 속, 응답 中企 96.2%가 정책자금이 업황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정책자금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 대출 기간' 및 '민간금융권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매출과 고용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융자지원 체계 운용 필요

* (1순위 응답) '장기 대출 기간'(52.2%) >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조달'(37.2%)
 (1+2순위 응답)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조달'(82.8%) > '장기 대출 기간'(73.6%)

- 특히, 창업초기 기업지원, 기술·사업성평가를 통한 유망기업 발굴, 장기 시설투자 자금 지원 확대, 초기 스케일업 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 등 민간금융 소외영역을 중심으로의 역할 강화 필요

○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직접+대리대출'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 제공 필요

- 선호하는 정책금융 지원방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증기관 지원이나 이차보전 방식보다 직접융자(직접/대리)를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 선호하는 정책자금 지원 방식(1+2순위) : 직접대출(97.8%) > 대리대출(46.0%)
 - 예산 확대가 필요한 중진공 정책자금(1+2순위) : 직접대출(94.0%) > 대리대출(50.4%)
- 특히, 규모가 작고 재무건전성 등 신용능력이 부족한 中企는 직접금융(내부잉여금, IPO, 회사채 발행)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출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필수적
-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을 통한 中企 투자여력 확보가 중요. 기업의 규모·업종·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및 지원방식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필요

* '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수는 804만 2,726개로 전체 기업의 99.9% 차지, 종사자수는 1,895만 6,294명으로 전체의 81.0% 차지

○ 현장 수요를 감안한 민간금융권 대출 이차보전 사업과 정책자금 융자 간 자원 배분 필요

- '23년 이차보전 사업 개시를 통해 고금리 시기의 중소기업에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여 정책자금이 시장 친화적으로 운용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시중은행 이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체감효과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이차보전을 활용중인 기업도 직접대출 위주의 현장수요***를 보임

* 융자(직접+대리) 및 이차보전을 활용 중인 中企의 12.7%만이 이차보전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97.3%는 직접대출, 48.2%는 대리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시장실패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이차보전지원 방식의 효과성을 재점검**하여 **정책자금 융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강화할 필요

○ 창업기, 성장기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수요에 따라 적절한 성장단계별 자원 배분 및 공급 필요

-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로 구분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의 예산 확대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응답 中企 78.2%는 기업성장단계 중 '창업기', '성장기'에 정책자금 예산 확대 필요 의견

- 재무 및 신용정보가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들은 민간금융 접근성이 낮아 초기 사업화 자금 확보에 큰 애로를 보임. 따라서 **혁신성장분야 창업기업, 기술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창업기 자금공급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성장기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성과, 수출 성과, R&D 성과** 등을 확산하기 위한 효과적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스케일업 금융, 수출 원부자재 구입 및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자금 확대**가 요구됨
- 한편,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하락·고용 위축 영향이 큰 도소매업 영위 기업의 **26.5%가 재도약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 유통업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자금경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도약기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재기지원 대상 기업에는 사업전환, 구조개선 등 목적에 적합한 융자 추가 지원 필요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개선



○ 일시 애로기업, 성과창출기업, 시설투자계획 보유기업에는 정책자금 우량기업 용자제한 예외 적용 필요

-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제한 사유 중 '우량기업'과 관련, 응답 중소기업의 89.6%가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완화 검토 필요 의견 제시
 - '23년 조사결과와 비교 시, 우량기업 용자제한 완화 필요 응답비중이 증가(+13.1%p) 및 용자제한 강화 필요 응답비중이 감소(△6.4%p)한 것으로 볼 때, 업계 전반에 걸쳐 늘어난 자금소요에 대응되는 유동성 지원 필요
- * (현행 적용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설비투자과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우량기업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 중임
 - 일시애로 기업, 투자 계획을 가진 우량기업 대상으로 용자제한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위기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성과창출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 필요

○ 정책목적성과 기업 니즈를 고려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병행 운영 필요

- 중소기업 68.6%가 대리대출 방식의 자금 조달에 긍정적이었으며, 기업 규모 및 금융기관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대리대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주담보를 활용한 추가 대출여력 확보 등 주거래은행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대출 방식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이는 기업의 늘어난 자금조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방식 다변화 및 대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진공 정책자금은 이미 우량기업 제한 등을 통해 민간금융 이용이 원활한 기업군에 대한 정책수혜 보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대리대출 방식 병행 등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선택권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서비스의 효과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

○ 中企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업사업 지속 추진 필요

- 中企 혁신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연계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올해 신규 도입한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 및 '개발기술 R&D 이차보전 사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내년 시행 예정인 '마일스톤 정책자금 프로그램'에 대해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지원기관별 핵심사업과 지원기능이 각기 다르고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영역도 차별화되어 있어, 중진공과 민간·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나아가 산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여 中企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Chapter 2

현장 인터뷰

현장 인터뷰 ① 유압 연결구 전문 제조기업 한텍(주) [창원]

성장 고비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정책자금

-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

한텍(주)은 산업장비의 핵심 부품인 유압 연결구 분야에서 24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강소 기업이다. 수요 산업의 전동화로 유압기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텍(주)은 디지털 전환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텍(주)은 제조업을 넘어 스마트공장 솔루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을 시작한 이진국 대표는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성장의 고비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Q.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느끼는 국내 경기와, 당사의 현재 경영상황은 어떤가?

A. 전동화로 위축된 유압 시장,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

당사는 건설기계와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압 구동용 배관 연결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수요 산업에서 전동화가 진행되면서 유압기기 시장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제조업 전반적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추세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지역 중소 제조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작해 스마트공장 1단계를 구축했다.

Q. 정부 지원사업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고 들었다.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A. 중소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핵심인력양성 연수 프로그램이 큰 역할

2019년 당시에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못 미친 이유도 있었지만, 외부 공급 기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내부 인력을 양성해서 진행하는 쪽이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이유는 생산성과 부가가치 증대인데, 회사 구성원들이 직접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성과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고 온전하게 직원들의 몫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핵심인력양성 연수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해줬다.

- Q. 중진공과의 인연이 오래됐다. **정책자금이 회사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됐나?**
 A. 위기마다 손 내밀어주는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처음으로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2008년 무렵이다. 공장 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후 시설투자비를 마련하느라 발을 동동 구를 때였는데, 중진공의 정책자금 덕분에 숨통을 트일 수 있었다. 이후에도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산시설을 늘릴 때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있어 자금 고민을 덜 수 있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보니 신용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시중 은행과 달리 기업의 성장성을 담보로 자금을 저리로 융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 Q.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다른 자금조달 수단과 **차별점**이 있다면?
 A. **담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

중진공은 기계장치도 담보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담보의 장벽이 낮다. 2020년을 전후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시설투자가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덕분에 설비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했고, 늘어나는 주문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이것이 2022년까지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또한 중진공 정책자금의 장점으로 꼽고 싶은 것은 낮은 금리와 금리 안정성이다.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처음 책정된 금리에서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비용 예측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 Q.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A. **디지털 전환 고도화**와 **온라인 시장**에 도전

스마트공장 1단계를 내부 역량으로 진행하고 나니 이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라는 걸 느꼈다. 다행히 중기부의 '자율형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해 6월부터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을 시작했다. 2026년까지 2년간 자율형 공장에 요구되는 AI 기술과 디지털 트윈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1단계 구축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시장에 도전하고 싶다.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기에 유지보수 부품 온라인 마켓 사업 등 미래 먹거리를 찾아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현장 인터뷰 ② 공간 리테일테크 스타트업 (주)워커스하이 (서울)

정책자금 마중물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 실내 공간 맞춤형 리테일 서비스 기술 고도화에 속도 -

(주)워커스하이는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공간에 설치되는 초근접 스토어를 통해 식음료 유통 시장을 혁신한다는 비전을 품은 리테일테크 스타트업이다. 국내 각종 상업시설과 호텔 등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베트남 진출에 성공해 해외 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했다. 창업 초기 자금난을 중진공의 정책자금으로 극복했던 (주)워커스하이는 최근 33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술 고도화와 리테일 미디어 비즈니스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내년 일본 진출을 앞둔 준비가 한창인 김충희 대표는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완성한 쇼케이스형 자판기가 이번 투자 유치에 마중물이 됐다고 전했다.

Q. 롯데칠성음료 사내벤처로 출발했다고 들었다. 어떤 비전을 품고 창업하게 되었나?

A. 제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리테일 혁신 플랫폼 만들고파

2008년 롯데칠성음료에 입사했다.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식품 제조사들이 겪는 문제가 보였다.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장에 내놓고 나면 최종적으로 제품을 누가 사는지 알 길이 없다. 제조사와 소비자가 단절된 구조이다 보니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제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창구, 즉 새로운 유통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창업하게 됐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하다.

A.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 제공하는 초근접 스토어

현재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유통사업 부문이다. 기업의 복지 시장을 주력으로 한 비스포크 맞춤형 사내 스낵바 서비스인 '오프레시'와 상업시설이나 호텔 등에서 운영하는 미니 무인점포가 핵심이다. 우리의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의 성별, 나이, 소속 등의 데이터는 물론이고 구매 패턴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자판기를 활용한 키오스크 프로모션 캠페인을 중개하는 미디어 사업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Q. 많은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A. **창업 1년 만에 겪은 자금난, 중진공 정책자금으로 극복**

처음에 시드 투자를 부족하지 않게 받은 편이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 자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현금 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탓이었다. 매출 기대감으로 기계장치에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는데 이후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니 위기가 크게 오더라. 초기 창업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우리도 한 셈이다. 다행히 중진공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Q.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나?

A. **중진공 정책자금이 투자 유치의 마중물이 되었고, 제품 출시에 결정적 역할**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을 일부 받았지만,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창업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쇼케이스형 자판기 개발 과정에서 받았던 정책자금 1억 원은 이번 투자 유치에 마중물이 됐다. AI 기반의 쇼케이스형 자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서 중진공의 정책자금 덕분에 완성도 높은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후 호텔 등에서 실적이 계속 쌓이며 회사의 성장지표가 높아졌고, 이것이 이번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

Q. 반면에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다.

A. **더 많은 기업이 정책자금 수혜 입도록 홍보에 힘써줬으면**

2022년에 처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 심사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을 제외 하고는 단점을 찾기 힘들다. 얼마 전 간담회에 참석해서 언급한 바 있으나 중진공의 지원사업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자금 외에도 정말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 이번에 유치한 33억 원의 투자자금 중 중진공의 성장공유형 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스타트업을 포함해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중진공에서 사업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혜를 입는 기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Q. 투자 유치로 자금이 숨통이 트였을 것 같은데, (주)워커스하이의 **앞으로의 행보**는?

A. **사무실·호텔 등에서 각광, 기술과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


고맙게도 우리가 개척하고 있는 공간 리테일 시장 상황이 좋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소비하길 원한다. 우리가 정의하는 공간 리테일은 사무실이나 호텔,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병원, 학교 등 모든 실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토어와 소비자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실내 거점에 우리의 솔루션을 도입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우리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고 사업의 고도화도 서두를 계획이다.

Chapter 3

주요국 중소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ISSUE 주요국 중소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미국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수 

3,320만개
 전체 기업의 **99.9%**
 (2024년 기준)

고용 

6,170만명
 전체 고용의 **46.4%**
 (2023년 기준)

대출금리 

6.42%~12.41% (중소기업)
 약 **8%** (대기업)

자금조달 방식

- 정부 지원 대출 (ex. SBA 대출)
- 은행 대출
- 고성장 및 기술 중심 기업을 위한 벤처자금
- 자체 자금 조달 또는 이익 잉여금
- 장비 리스 및 할부 구매

자금조달 애로사항

- 높은 이자율로 인한 차입비용 증가
- 강화된 금융기관 대출 조건
- 초·고위험 기업에 대한 벤처자금 접근 제한
- 무역 정책과 규제 장벽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 대금회수 지연으로 인한 악화된 현금 흐름


제도개선 요청사항

- 신생 기업 대상 유연한 대출조건 제공
- 혁신적이고 기술 주도형 중소기업을 위한 벤처 자금 확대
- 정부 지원 대출의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서류 절차 축소
- 신규 시장 수출지원 프로그램 확대
- 국제 무역 자금 조달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

중소기업 지원방식

- **대표 지원기관**
 미국 중소기업청 (1953년 설립)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 **연방보증 대출프로그램**
 - SBA 7(a): 운영자본 확보, 부채 상환, 사업 및 자산 재구매에 주로 활용
 - SBA 504: 사업운영과 관련된 상업용 부동산, 대형 장비 구매 등에 활용
 - 기타 소액대출, 재해기업 저리대출 지원 등
- **직업훈련, 경영상담 등 교육 및 개발지원**
- **8(a) 비즈니스 개발**
 - 여성 중소기업(WOSB) 연방 계약프로그램 등 정부 계약 참여지원
- **HUBZone 프로그램**
 - 경제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계약 우선권 등 혜택 제공
- **재향군인 기업가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 혁신연구(SBIR) 및 중소기업 기술 이전(STTR) 프로그램**
- **중소기업 관련 의회 법안 검토, 규제 개선**

중국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수 

5,200만개
 전체 기업의 **99%**
 (2022년 기준)

고용 

5억 8,500만명
 전체 고용의 **79%**
 (2022년 기준)

대출금리 

약 **4.0~6.0%** (중소기업)
 약 **3.3~4.3%** (대기업)

주요 자금조달 방식

- 정책금융기관 용자
- 상업은행 대출(포용적 금융(=보혜금융))
- 온라인 P2P 금융
- 벤처 캐피탈(VC), 크라우드 펀딩
- 금융리스 및 팩토링
- 기업간신용 차입(Trade Credit)

자금조달 애로사항

- 담보대출 대비 낮은 신용대출 활용도
- 금융기관의 담보 요구조건 강화
- 높은 이자율로 인한 차입비용 증가
- 낮은 금융 접근성
- 소기업을 중심으로 현금흐름 관리의 어려움


제도개선 요청사항

-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비용 경감
- 담보 요구조건 완화
- 신속한 대출 심사 및 승인 절차 도입
-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확대
- 보조금 등 자금조달 경로 확대
- 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투명성 강화

중소기업 지원

- **대표 유관기관**
 - 중소기업협회(CASME)
 - 중국인민은행
 - 중국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
- **중소기업 금융보증 규모 확대**
 : 다양한 자금담보 용자 방식(미수금·지적재산권·오더 등)의 신용 담보 기반 대출 확대
- **중소·영세기업 대상 세제 우대정책 시행**
 - 소득세 감면, R&D 비용 추가 공제
- **포용적 신용대출 지원정책 시행**
 - 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지원규모 확대
 - 중소기업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지원
 - 공급망 금융 지원 강화
- **중소 제조기업 대상 안정적 에너지 공급 보장**
 : 생산 안정화를 통해 주문불이행 위험 방지
- **고용 안정 지원**(사회보장 보조금 지원 등)
- **중소기업 자금지급보장**
 : 대기업의 미지급금 관리 강화
- **건설·인프라 분야 중소기업 조달 할당 지원**

일본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수 

420만개
 전체 기업의 **99.7%**
 (2023년 기준)

고용 

3,580만명
 전체 고용의 **70%**
 (2023년 기준)

대출금리 

단기프라임레이트: **1.625%**
 (2024. 9월 기준,
 대출금리 산정기준)

자금조달 방식

- 정책금융기관 용자
- 상업은행 대출
- 자체 자금조달(기업 내부 유보금)
- 무역금융(수출업체 대상 금리우대 대출)
- 리스 및 할부금융
- 벤처캐피탈(VC) 및 투자펀드 조달

자금조달 애로사항

-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접근성 악화
- 장기 대출금리가 높아 활용성 낮음
- 경영자보증 및 부동산담보 요구
-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
-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능력 부족
-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개선 요청사항

-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의 활성화
- 정책금융 접근성 향상(절차, 정보제공)
-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능력 강화
-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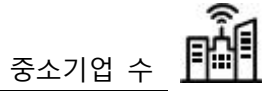
일본 경제구조 및 용자관행

- ① 기업 부문의 자금잉여 상태 장기 지속으로 자금부족을 전제로 한 기존의 대출 관행이 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② 비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 ③ 혁신 인프라 활성화 필요성 증대

중소기업 지원

- 대표 지원기관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2004 설립)
 - : 창업지원펀드 조성, 판로 지원, 사업승계 및 경영 컨설팅, 공제사업 지원
- 「경영자 보증 개혁 프로그램(2022.12월)」
 - 스타트업창업: 창업 5년 이내인 경우 보증 예외
 - 민간용자: 금융기관의 보증요구에 대한 감독강화
 - 신용보증부용자: 보증료 납입 시 보증 해제
 - 중소기업의 거버넌스 정비
- 「사업성장담보권 활용(2023.2월)」 활성화
 - : 사업 전체의 장래성 등 존속가치를 평가
 - 사업성장담보 관련 면허제로 운영
 - 채무자(담보권 설정자)를 위탁자, 담보권자(신탁 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 체결형태

독일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수

310만개

전체 기업의 **93%**
(2023년 기준)



고용

1,910만명

전체 고용의 **53.6%**
(2023년 기준)



대출금리

평균 **5.48%** (중소기업)

평균 **6.53%** (대기업)
(24.8월 기준)

자금조달 방식

- 정책금융기관 융자
- 상업은행 대출
- 신용보증 및 정부 보조금
- 자체 자금조달(기업 내부 유보금)
- 무역금융(수출업체 대상 금리우대 대출)
- 리스 및 임대금융

자금조달 애로사항

-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강화
- 소기업을 중심으로 현금흐름 악화
- 정책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존재
-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신용등급 하락과 만기도래 상환 부담

제도개선 요청사항

- 이자율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 대출비용 경감
- 담보 요구 조건 완화
- 신속한 대출 심사 및 승인 절차 도입
-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대상 세제 혜택
- 유럽과 독일의 그린 및 디지털 전환 추세에 부합하여 혁신 스타트업 대상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 지원

- **대표 지원기관**
 - KfW 은행그룹(KfW Bankengruppe)
 - 독일중소기업연구소(IfM Bonn)
 - 연방 및 주(州)차원의 정책금융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제도(KfW 은행그룹)**
 - 에너지 효율화 지원 정책
 - 혁신 및 R&D 투자 보조금 지원
 - 수출 금융 및 무역 보증 확대 지원
 - 고용 창출을 위한 인력 훈련 지원
- **그린 본드 프로그램**
 - 72억 유로 규모의 그린 본드 발행(24년 상반기)
 -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채권 등 발행

벤처캐피탈(VC) 생태계 활성화 노력

- **미래펀드(Zukunftsfonds)**
 - : 독일재건은행 및 유럽투자펀드(EIF)의 공동 기금, 딥테크 및 기후펀드, 벤처테크/지역혁신성장 기금으로 구성
- **첨단기술 창업펀드(High-Tech Gründerfonds/HTGF)**
 - : 하드웨어 중심 공학, 라이프 사이언스, 화학, 소프트웨어, 미디어, 인터넷 등이 주요 투자 분야
- **코패리온(Coparion)**
 - : 10년 미만의 스타트업 또는 성장기업 대상 금전적 지원 이외에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

싱가포르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수 

30만개
 전체 기업의 **99%**
 (2023년 기준)

고용 

260만명
 전체 고용의 **71%**
 (2023년 기준)

대출금리 

중소기업 대출금리
 = 대기업 대출금리 **+1.5%**

자금조달 방식

- 상업은행 대출
- 정책금융기관 융자
- 벤처캐피탈 투자 및 엔젤투자자 활용
- 자체 자금조달(기업 내부 유보금)

자금조달 애로사항

-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비용 증가
-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인프라 자금 부족
-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 금융기관의 보증 및 담보 요구 강화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

제도개선 요청사항

- 금리 보조금 확대
- 대출 조건 완화 및 담보 요구 완화
- 정책자금 신청 절차의 간소화
- 디지털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대상 세제 혜택


중소기업 지원방식

- **대표 지원기관**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ESG), Startup SG
- **Enterprise Financing Scheme (EFS)**
 -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조달을 지원
 - 종류: 운전자금 대출, 고정자산 대출, 그린 론, 프로젝트 론 등
- **SAGE 프로그램**
 [Sustainability-Linked Advisory, Grants and Enablers]
 - UOB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성 목표(SPT)를 설정한 기업들에 대해 우대 대출금리 제공

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원기관: Startup SG]

- (Talent) 사업가 유치, R&D 인재육성, 교육
- (Founder) 혁신아이디어에 대한 지원금
- (Tech) 사업 단계별 지원금 제공
- (Accelerator) 글로벌 스타트업 조력자 지원
- (Equity)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에 민간투자 촉진
- (Infrastructure) 스타트업 활동 공간 제공
- (Loan) 6개 사업운영 분야별 대출 제도 운영
- (Investor)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 부여

베트남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수 

90만개
 전체 기업의 **98%**
 (2023년 기준)

고용 

2,600만명
 전체 고용의 **50%**
 (2023년 기준)

대출금리 

약 **8~10%** (중소기업)
 약 **6~8%** (대기업)

자금조달 방식

- 정책금융기관 융자
- 상업은행 대출
- 정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 벤처캐피탈 등 외부 투자 유치
- 자체 자금조달(기업 내부 유보금)
- 리스 및 임대금융

자금조달 애로사항

-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
-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 강화
- 글로벌 경제 변동성에 따른 환율 리스크
-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의 복잡성
- 중소기업의 신용 평가 부족으로 인한 대출 불승인 증가


제도개선 요청사항

- 대출 금리 인하 및 자금 지원 확대
- 대출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고도화
- 신용평가 기준 완화 및 평가 시스템 개선
- 중소기업 전용 금융 상품 개발
-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지원방식

- 대표 지원기관
 - 베트남 중소기업 개발기금 (Vietnam SME Development Fund, SMEDF)
 - 베트남 중소기업협회(VINASME)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 SMEDF 지원 사업
 - 중소기업 대출금리 보조 프로그램
 - 기술 혁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중소기업 대상 수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경영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 신생 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 환경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해외진출 보조금 및 금융 지원
 - 중소기업의 신용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보증 프로그램

인도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수 

7,500만개
(2023년 기준)

고용 

1억 2,300만명
(2023년 기준)

대출금리 

평균 약 **9%** (중소기업)

자금조달 방식

- 정책금융기관 융자
- 상업은행 대출
- 무담보 소액 대출(Mudra Loans)
- NBFC(Non-Banking Financial Company) 대출
- 벤처캐피탈 등 외부 투자 유치
- 자체 자금조달(기업 내부 유보금)

자금조달 애로사항

-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
- 신용평가 기준 강화
- 금융기관의 보증 및 담보 요구 강화
- 정책금융 지원의 접근성 부족
- 민간 금융기관의 보수적 대출 정책


제도개선 요청사항

-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경감
- 담보 요건 완화
-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 중소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정책금융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지원방식

- **대표 지원기관**
 - 인도 중소기업 개발은행(SIDBI)
(Small Industries Development Bank of India)
- **인도 중소기업 개발은행(SIDBI) 역할**
 - 금융지원 제공
 - 신용보증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지원
 - 개술개발 촉진
 - 마케팅 및 수출 지원
 -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정책 자문 및 연구수행
 - 지속가능한 금융 촉진
- 「**MUDRA Loan 프로그램**(15.4월~)」
(Micro Units Development and Refinance Agency)
: 제조업, 서비스업, 소매업, 농업 관련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 창출 및 고용창출 지원
 - Shishu(시슈): 사업 초기 단계 자금 지원
 - Kishore(키쇼르): 사업 확장 단계 자금 지원
 - Tarun(타룬): 사업 성숙 단계의 자금 지원

캐나다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수 

119만개

전체 기업의 **97.8%**
(2023년 기준)

고용 

665만명

전체 고용의 **38.7%**
(2022년 기준)

대출금리 

변동금리: **프라임대출금리+3%**

(프라임대출금리: 5.95%, '24.11월)

자금조달 방식

- 정책금융기관 융자
- 상업은행 대출
- 벤처캐피탈 등 외부 투자 유치
- 자체 자금조달(기업 내부 유보금)
- 클라우드 펀딩
- 리스 및 임대금융

자금조달 애로사항

- 대출 금리 상승
- 담보 요구 증가
- 경기둔화에 따른 신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 은행 대출 승인을 감소
- 대출 조건 강화

제도개선 요청사항

- 대출금리 인하 및 담보 요구 완화
- 소액 대출 상품 확대
- 신규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보조금 지원의 확대
-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저금리·무이자 대출
- 인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수출 관련 정보 제공

중소기업 지원방식

○ 대표 지원기관

- 캐나다 기업개발은행(BDC)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 BDC 금융지원 프로그램

- 운영 자금/장비 및 부동산/기술혁신 대출
- 경영 컨설팅 및 자문서비스
- 디지털전환 지원
- 벤처캐피탈 투자
- 스타트업 자본 투자
- 중소기업 성장펀드 운용
- 수출지원 프로그램 제공

○ 「캐나다 중소기업 금융 프로그램(CSBFP)」


: 중소기업이 사업 확장이나 설비투자 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

(지원대상) 캐나다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며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캐나다 달러 이하 기업

(대출한도) 사업체 구매의 경우 최대 50만 캐나다 달러의 75%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115만 캐나다 달러의 90%까지 대출 가능

(용도) 상업용 부동산 구매, 시설 개선(차 시설 포함), 장비 구입 등 사업 확장과 관련된 자금으로 활용

멕시코의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수 

480만개
 전체 기업의 **98.7%**
 (2024년 기준)

고용 

6,100만명
 전체 고용의 **72%**
 (2024년 기준)

대출금리 

11.24% (중소기업)
 ('24.8월(CeicData))

자금조달 방식

- 정책금융기관 융자(NAFIN, BANCOMEXT)
- 상업은행 대출
- 벤처캐피탈 등 외부 투자 유치
- 자체 자금조달(기업 내부 유보금)
- 외부 민간 펀딩

자금조달 애로사항

- 엄격한 대출 조건 및 복잡한 대출 절차
- 원자재 비용 상승
- 정책자금 활용 관련 제한된 접근성
- 외환 변동성으로 인한 대외 리스크 증가
- 신용기록 부족으로 인한 불리한 대출심사여건

제도개선 요청사항

- 자금의 투명한 분배 요구
- 다양한 외환 보호 수단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 확대
-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세액공제 도입
- 저금리 대출프로그램 확대, 보조금 지원
- 법률 및 규제지원 강화
-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구축 지원
-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중소기업 지원방식

- 대표 지원기관
 - 멕시코 국가금융공사(NAFIN)
 - 멕시코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내 중소기업지원센터(MiPYME)
 - 멕시코 중소기업협회(CONACEM)
 - 멕시코 상공회의소(CANACINTRA)
- 멕시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 국가기업가연구소(INADEM) 프로그램
: 중소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 교육·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 개발기금(Fondo PYME) 운용
 - 수출지원: 멕시코 수출입은행(Bancomext)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기술혁신: 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ACYT)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 지원
- 멕시코 중소기업 지원 기능
 - 중소기업 신용 보증 프로그램 강화
 -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 지원
 - 여성 및 소수계 기업인을 위한 창업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녹색 산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

부록

설문조사지 및 조사결과표

#

설문조사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ID -

안녕하십니까? 귀사(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진공에서는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더불어 금융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애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자금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 조사주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조사수행 : (주)와이즈인컴퍼니

【 I . 일반사항 】

지역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④ 대전·세종	⑤ 충남	⑥ 충북	⑦ 강원	⑧ 전북	⑨ 광주	⑩ 전남	⑪ 제주	⑫ 대구	⑬ 경북	⑭ 울산	⑮ 부산	⑯ 경남				
매출액(23년도)	① 5억 미만		② 10억 미만		③ 50억 미만		④ 100억 미만		⑤ 300억 미만		⑥ 300억 이상									
종업원 수	① 5인 미만		② 10인 미만		③ 50인 미만		④ 100인 미만		⑤ 100인 이상											
업력 구분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7년 미만		⑤ 7~10년 미만		⑥ 10~15년 미만		⑦ 15~20년 미만		⑧ 20년 이상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① 5억 미만		② 10억 미만		③ 20억 미만		④ 30억 미만		⑤ 50억 미만		⑥ 50억 이상									
업종	① 금속		② 기계		③ 화공		④ 전기·전자		⑤ 섬유		⑥ 식품		⑦ 정보처리		⑧ 유통		⑨ 기타 제조		⑩ 기타 서비스	
정책자금 이용여부	①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② 이차보전		③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④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 Ⅱ . 경영현황 및 자금조달 】

1. '23년 대비 '24년 귀사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은 어떠합니까?

- ① 매우악화 ② 다소악화 ③ 동일 ④ 다소호전 ⑤ 매우 호전

2. 내년도('25년) 귀사의 매출액, 수출규모, 고용변동은 금년도('24년)와 비교 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 매출

50% 이상 감소	20 ~ 50% 미만 감소	20% 미만 감소	변화 없음	20% 미만 증가	20 ~ 50% 미만 증가	50% 이상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시설투자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최대 2개 선택)

- ① 정책자금(중진공 직접대출+대리대출) ② 정책자금(중진공) + 시중은행 대출 매칭
- ③ 시중은행 대출 + 보증기관(신.기보 등) ④ 시중은행 대출
- ⑤ 투자유치 또는 회사채 ⑥ 자체자금
- ⑦ 기타(_____)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 일반】

5. 중진공 정책자금이 귀사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1) (문5의 ①, ② 응답자만) 정책자금을 주로 어느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원부자재 조달 ② 인건비 조달 ③ 설비 구입 ④ 연구개발비용
- ⑤ 판로 및 시장개척비 ⑥ 사업장매입 ⑦ 기타

5-2) (문5의 ①, ② 응답자만) 정책자금은 어느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최대 2개 선택)

- ① 매출액 향상 ② 고용효과 ③ 수출확대 ④ 사업확장 ⑤ 생산성 향상
- ⑥ 여유자금 확보 ⑦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⑧ 기타

5-3) (문5의 ④, ⑤ 응답자만)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6. 귀 사가 선호하는 정책금융 지원 방식은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최대 2개 선택)

- ① 정책자금(중진공) 직접대출 ② 정책자금(중진공) 대리대출
- ③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투자방식 ④ 신.기보 보증서
- ⑤ 민간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⑥ 팩토링 금융
- ⑦ 네트워크론 ⑧ 기타(_____)

* (팩토링 금융)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이 인수하여 판매기업 대상 조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청구를 구매기업에게만 실시하여 연쇄부도 방지

** (네트워크론) 모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게 발급한 납품확인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초단기 운전자금

7. 귀사가 생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최대 2개 선택)

- ① 장기 대출 기간(운전 5년, 시설 10년) ② 민간금융권 보다 낮은 대출금리
- ③ 민간금융권 보다 높은 대출한도 ④ 신용대출
- ⑤ 재무평가가 아닌 기술·사업성 평가체계 ⑥ 기타(_____)

8.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투자), 이차보전 방식 등으로 운용 중으로 어떤 용자 방식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최대 2개 선택)

- ① 직접대출 (중진공을 통해 정책자금 용자)
- ② 대리대출 (중진공이 지원 결정 후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용자)
- ③ 성장공유형 (용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 인수)
- ④ 스케일업(P-CBO) (회사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 ⑤ 매출채권팩토링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 후 조기 현금화 지원)
- ⑥ 이차보전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 ⑦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9.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업성장단계별(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전주기)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귀사께서는 어느 영역의 정책자금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창업기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및 우수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 ② 성장기 (업력 7년이상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수출 글로벌화를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
- ③ 재도약기 (재도전 환경 조성, 사업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 재도약 기회를 위한 재도약지원자금)
- ④ 전주기 (일시애로 중소기업 정상화 및 단기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등)

【IV. 정책자금 제도개선 – 1. 우량기업 용자제한】

정책자금은 창업활성화와 초격차·신산업 기업 집중육성 등을 위해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하여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며, 여신한도 제한으로 민간금융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량기업도 존재 하기에 스케일업·글로벌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자금 공급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10. 귀사는 현재의 우량기업 용자제한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량기업) 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②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③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① 제한 기준 완화 필요
- ② 현재 수준 적정함
- ③ 제한 기준 강화 필요

11. 우량기업 지원제한 예외 사유(우량기업 지원가능 조건)를 운용한다면 다음 중 어떠한 경우에 우량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우량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 ② 시설투자 계획 중인 우량기업 지원
- ③ 일시적애로를 겪는 우량기업 지원
- ④ 성과창출(고용·수출·매출) 우량기업 지원

【IV. 정책자금 제도개선 - 2.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

중진공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를 위하여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진공 직접대출과 대출기간 및 금리 등 대출조건 동일)
 대리대출은 시설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운용되며, 담보활용 편의 제공,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 재원한계 보완, 기업 편의 제고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12.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방식 중 대리대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12-1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13문항으로 이동

12-1. 귀사가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최대 2개 선택)

- ① 주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담보를 활용한 추가 은행대출 가능
- ② 토지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 중진공이 1순위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③ 대규모 시설투자시 은행 재원과 정책자금 매칭으로 정책자금 재원한계 보완
- ④ 중진공 직접대출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이 필수적이나, 대리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시기 도래 시 주담보 취득 은행을 통한 대환 가능
- ⑤ 주거래은행과 지속 거래로 인한 우대혜택 및 시중은행지점의 높은 접근성

【IV. 정책자금 기타】

13. 중진공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견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25년부터 소진공·중진공 연계지원 방식인 '마일스톤 방식의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에 대해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이 후속 연계 이어달리기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 중진공은 민간·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 개발기술 R&D 이차보전 사업 등을 올해 신규 도입했습니다. 향후에도 타 기관(민간·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5. 중소기업 정책자금 건의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시) 정책자금 정보 전달의 사각지대 존재 등

#

설문조사 결과표

□ '23년 대비 '24년 귀사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매우 악화	다소 악화	동일	다소 호전	매우 호전	악화	호전
■ 전체 ■		(500)	9.8	30.4	23.6	30.0	6.2	40.2	36.2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10.2	31.7	21.0	30.6	6.5	41.9	37.1
	이차보전	(4)	25.0	50.0	0.0	25.0	0.0	75.0	25.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6.4	26.4	31.8	30.0	5.5	32.7	35.5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21.4	21.4	35.7	14.3	7.1	42.9	21.4
매출액	10억 미만	(172)	11.6	29.7	19.8	30.8	8.1	41.3	39.0
	50억 미만	(177)	10.7	28.2	29.4	25.4	6.2	39.0	31.6
	100억 미만	(76)	10.5	32.9	19.7	34.2	2.6	43.4	36.8
	300억 미만	(61)	3.3	34.4	21.3	37.7	3.3	37.7	41.0
	300억 이상	(14)	0.0	35.7	28.6	21.4	14.3	35.7	35.7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12.6	24.4	25.2	29.1	8.7	37.0	37.8
	10인 미만	(124)	12.9	33.9	20.2	29.0	4.0	46.8	33.1
	50인 미만	(206)	7.8	31.1	24.8	31.6	4.9	38.8	36.4
	100인 미만	(27)	0.0	48.1	22.2	22.2	7.4	48.1	29.6
	100인 이상	(16)	6.3	12.5	25.0	37.5	18.8	18.8	56.3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8.9	23.6	22.7	36.0	8.9	32.5	44.8
	5~10년 미만	(113)	12.4	27.4	23.9	31.9	4.4	39.8	36.3
	10~15년 미만	(63)	12.7	31.7	27.0	27.0	1.6	44.4	28.6
	15~20년 미만	(30)	13.3	36.7	13.3	26.7	10.0	50.0	36.7
	20년 이상	(91)	5.5	46.2	26.4	17.6	4.4	51.6	22.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10.1	28.0	23.9	32.1	6.0	38.1	38.1
	10~50억 미만	(173)	11.6	31.8	23.7	26.6	6.4	43.4	32.9
	50억 이상	(59)	3.4	37.3	22.0	30.5	6.8	40.7	37.3
업종	제조업	(347)	10.1	32.9	24.8	26.5	5.8	42.9	32.3
	도매 및 소매업	(49)	4.1	26.5	20.4	44.9	4.1	30.6	49.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15.1	22.6	20.8	34.0	7.5	37.7	41.5
	기타	(51)	7.8	25.5	21.6	35.3	9.8	33.3	45.1

□ 내년도('25년) 귀사의 매출액, 수출규모, 고용변동은 금년도('24년)와 비교 예상

• 매출액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50% 이상 감소	20~50% 미만 감소	20% 미만 감소	변화 없음	20% 미만 증가	20~50% 미만 증가	50% 이상 증가
■ 전체 ■		(500)	4.0	7.4	13.8	17.6	32.0	15.8	9.4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3.0	7.5	15.3	17.2	32.3	15.1	9.7
	이차보전	(4)	25.0	50.0	0.0	0.0	25.0	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6.4	4.5	9.1	19.1	32.7	20.0	8.2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14)	7.1	14.3	14.3	21.4	21.4	7.1	14.3
매출액	10억 미만	(172)	6.4	8.1	8.7	12.2	27.3	21.5	15.7
	50억 미만	(177)	2.8	9.0	16.9	16.4	33.9	13.6	7.3
	100억 미만	(76)	2.6	7.9	17.1	26.3	32.9	10.5	2.6
	300억 미만	(61)	1.6	0.0	16.4	21.3	39.3	13.1	8.2
	300억 이상	(14)	7.1	7.1	7.1	35.7	28.6	14.3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7.9	7.9	10.2	14.2	27.6	16.5	15.7
	10인 미만	(124)	3.2	8.9	16.1	16.9	32.3	13.7	8.9
	50인 미만	(206)	2.4	6.8	13.6	18.0	35.9	18.4	4.9
	100인 미만	(27)	3.7	7.4	14.8	33.3	25.9	0.0	14.8
	100인 이상	(16)	0.0	0.0	25.0	18.8	25.0	18.8	12.5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4.4	5.4	8.9	11.8	30.0	22.7	16.7
	5~10년 미만	(113)	5.3	8.8	12.4	18.6	35.4	11.5	8.0
	10~15년 미만	(63)	1.6	11.1	15.9	25.4	27.0	15.9	3.2
	15~20년 미만	(30)	10.0	6.7	20.0	16.7	23.3	16.7	6.7
	20년 이상	(91)	1.1	7.7	23.1	24.2	38.5	5.5	0.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4.5	9.0	11.9	13.8	31.7	16.8	12.3
	10~50억 미만	(173)	4.6	5.8	14.5	21.4	31.8	16.2	5.8
	50억 이상	(59)	0.0	5.1	20.3	23.7	33.9	10.2	6.8
업종	제조업	(347)	3.7	9.5	14.4	18.4	31.7	15.0	7.2
	도매 및 소매업	(49)	4.1	4.1	10.2	22.4	32.7	14.3	12.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5.7	1.9	13.2	7.5	34.0	20.8	17.0
	기타	(51)	3.9	2.0	13.7	17.6	31.4	17.6	13.7

• 수출규모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50% 이상 감소	20~50% 미만 감소	20% 미만 감소	변화 없음	20% 미만 증가	20~50% 미만 증가	50% 이상 증가
■ 전체 ■		(500)	2.8	2.6	2.6	68.6	15.2	3.8	4.4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3.2	2.2	1.9	71.2	14.2	3.5	3.8
	이차보전	(4)	0.0	0.0	25.0	75.0	0.0	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1.8	4.5	2.7	59.1	20.0	5.5	6.4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14)	0.0	0.0	14.3	71.4	7.1	0.0	7.1
매출액	10억 미만	(172)	4.1	2.9	0.6	70.3	13.4	3.5	5.2
	50억 미만	(177)	1.1	4.0	2.3	70.1	14.1	4.5	4.0
	100억 미만	(76)	3.9	1.3	5.3	63.2	17.1	5.3	3.9
	300억 미만	(61)	1.6	0.0	3.3	68.9	21.3	1.6	3.3
	300억 이상	(14)	7.1	0.0	14.3	57.1	14.3	0.0	7.1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4.7	1.6	0.0	77.2	8.7	2.4	5.5
	10인 미만	(124)	2.4	3.2	1.6	70.2	16.9	4.0	1.6
	50인 미만	(206)	2.4	3.4	3.9	63.1	17.5	4.9	4.9
	100인 미만	(27)	0.0	0.0	3.7	55.6	29.6	3.7	7.4
	100인 이상	(16)	0.0	0.0	12.5	81.3	0.0	0.0	6.3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2.5	2.5	0.5	70.4	13.8	4.9	5.4
	5~10년 미만	(113)	2.7	0.9	0.9	75.2	11.5	3.5	5.3
	10~15년 미만	(63)	4.8	0.0	6.3	68.3	14.3	3.2	3.2
	15~20년 미만	(30)	3.3	13.3	3.3	50.0	23.3	3.3	3.3
	20년 이상	(91)	2.2	3.3	6.6	62.6	20.9	2.2	2.2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2.6	1.1	1.5	73.1	13.4	4.1	4.1
	10~50억 미만	(173)	3.5	5.8	2.3	65.3	16.2	2.3	4.6
	50억 이상	(59)	1.7	0.0	8.5	57.6	20.3	6.8	5.1
업종	제조업	(347)	3.7	3.2	3.2	64.8	15.6	4.6	4.9
	도매 및 소매업	(49)	2.0	2.0	0.0	77.6	14.3	0.0	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0.0	1.9	1.9	77.4	15.1	1.9	1.9
	기타	(51)	0.0	0.0	2.0	76.5	13.7	3.9	3.9

• 고용변동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50% 이상 감소	20~50% 미만 감소	20% 미만 감소	변화 없음	20% 미만 증가	20~50% 미만 증가	50% 이상 증가
■ 전체 ■		(500)	2.6	4.0	7.8	36.2	38.2	7.4	3.8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2.2	4.3	7.8	37.1	37.9	7.3	3.5
	이차보전	(4)	0.0	25.0	25.0	25.0	25.0	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3.6	2.7	8.2	30.9	41.8	8.2	4.5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7.1	0.0	0.0	57.1	21.4	7.1	7.1
매출액	10억 미만	(172)	5.8	3.5	4.7	33.7	35.5	10.5	6.4
	50억 미만	(177)	1.1	5.1	8.5	35.6	39.5	7.3	2.8
	100억 미만	(76)	0.0	5.3	10.5	40.8	36.8	3.9	2.6
	300억 미만	(61)	0.0	1.6	13.1	39.3	39.3	4.9	1.6
	300억 이상	(14)	7.1	0.0	0.0	35.7	57.1	0.0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6.3	4.7	3.1	44.1	26.8	9.4	5.5
	10인 미만	(124)	2.4	4.0	9.7	37.1	37.1	8.1	1.6
	50인 미만	(206)	0.5	3.4	8.7	30.6	47.6	6.3	2.9
	100인 미만	(27)	0.0	7.4	7.4	51.9	22.2	3.7	7.4
	100인 이상	(16)	6.3	0.0	18.8	12.5	43.8	6.3	12.5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2.5	3.4	4.9	31.0	39.4	11.8	6.9
	5~10년 미만	(113)	3.5	5.3	9.7	35.4	36.3	6.2	3.5
	10~15년 미만	(63)	0.0	1.6	7.9	47.6	38.1	4.8	0.0
	15~20년 미만	(30)	3.3	10.0	13.3	23.3	36.7	10.0	3.3
	20년 이상	(91)	3.3	3.3	9.9	45.1	38.5	0.0	0.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4.1	4.1	6.3	35.1	38.1	8.6	3.7
	10~50억 미만	(173)	0.6	4.0	9.2	37.0	38.2	7.5	3.5
	50억 이상	(59)	1.7	3.4	10.2	39.0	39.0	1.7	5.1
업종	제조업	(347)	2.6	4.3	7.5	39.8	36.3	6.1	3.5
	도매 및 소매업	(49)	2.0	2.0	12.2	36.7	36.7	6.1	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5.7	3.8	7.5	15.1	50.9	13.2	3.8
	기타	(51)	0.0	3.9	5.9	33.3	39.2	11.8	5.9

□ 현재 귀사의 자금 사정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매우 악화	다소 악화	동일	다소 호전	매우 호전	악화	호전
■ 전체 ■		(500)	10.4	35.2	36.4	16.4	1.6	45.6	18.0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11.3	33.6	36.8	16.4	1.9	44.9	18.3
	이차보전	(4)	25.0	50.0	25.0	0.0	0.0	75.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7.3	40.9	33.6	18.2	0.0	48.2	18.2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7.1	28.6	50.0	7.1	7.1	35.7	14.3
매출액	10억 미만	(172)	11.6	32.0	33.7	20.3	2.3	43.6	22.7
	50억 미만	(177)	11.3	39.5	33.3	14.1	1.7	50.8	15.8
	100억 미만	(76)	10.5	35.5	34.2	18.4	1.3	46.1	19.7
	300억 미만	(61)	6.6	36.1	44.3	13.1	0.0	42.6	13.1
	300억 이상	(14)	0.0	14.3	85.7	0.0	0.0	14.3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10.2	37.0	31.5	18.9	2.4	47.2	21.3
	10인 미만	(124)	14.5	35.5	35.5	12.9	1.6	50.0	14.5
	50인 미만	(206)	8.3	34.0	40.8	16.5	0.5	42.2	17.0
	100인 미만	(27)	11.1	33.3	33.3	18.5	3.7	44.4	22.2
	100인 이상	(16)	6.3	37.5	31.3	18.8	6.3	43.8	25.0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9.9	33.5	34.5	18.7	3.4	43.3	22.2
	5~10년 미만	(113)	12.4	43.4	28.3	15.9	0.0	55.8	15.9
	10~15년 미만	(63)	7.9	31.7	39.7	20.6	0.0	39.7	20.6
	15~20년 미만	(30)	13.3	30.0	36.7	16.7	3.3	43.3	20.0
	20년 이상	(91)	9.9	33.0	48.4	8.8	0.0	42.9	8.8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8.2	33.6	38.1	17.5	2.6	41.8	20.1
	10~50억 미만	(173)	15.0	37.6	31.8	15.6	0.0	52.6	15.6
	50억 이상	(59)	6.8	35.6	42.4	13.6	1.7	42.4	15.3
업종	제조업	(347)	11.0	37.2	35.4	15.0	1.4	48.1	16.4
	도매 및 소매업	(49)	8.2	30.6	44.9	14.3	2.0	38.8	1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11.3	28.3	32.1	26.4	1.9	39.6	28.3
	기타	(51)	7.8	33.3	39.2	17.6	2.0	41.2	19.6

□ 현재 자금 사정이 악화된 원인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판매부진	주거래은행의 대출 상환 요구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기타	
■ 전체 ■	(228)	36.0	9.2	18.0	20.6	16.2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167)	35.9	10.2	16.8	22.2	15.0
	이차보전	(3)	33.3	0.0	33.3	33.3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53)	37.7	7.5	20.8	13.2	20.8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5)	20.0	0.0	20.0	40.0	20.0
매출액	10억 미만	(75)	36.0	8.0	16.0	21.3	18.7
	50억 미만	(90)	36.7	8.9	24.4	18.9	11.1
	100억 미만	(35)	31.4	11.4	11.4	22.9	22.9
	300억 미만	(26)	42.3	11.5	11.5	19.2	15.4
	300억 이상	(2)	0.0	0.0	0.0	50.0	50.0
종업원수	5인 미만	(60)	38.3	8.3	20.0	20.0	13.3
	10인 미만	(62)	33.9	14.5	16.1	17.7	17.7
	50인 미만	(87)	34.5	6.9	21.8	19.5	17.2
	100인 미만	(12)	41.7	0.0	0.0	41.7	16.7
	100인 이상	(7)	42.9	14.3	0.0	28.6	14.3
업력구분	5년 미만	(88)	38.6	3.4	15.9	19.3	22.7
	5~10년 미만	(63)	28.6	17.5	27.0	14.3	12.7
	10~15년 미만	(25)	28.0	16.0	8.0	28.0	20.0
	15~20년 미만	(13)	46.2	0.0	23.1	30.8	0.0
	20년 이상	(39)	43.6	7.7	12.8	25.6	10.3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112)	37.5	6.3	18.8	23.2	14.3
	10~50억 미만	(91)	30.8	13.2	19.8	19.8	16.5
	50억 이상	(25)	48.0	8.0	8.0	12.0	24.0
업종	제조업	(167)	38.3	7.2	22.8	16.2	15.6
	도매 및 소매업	(19)	21.1	15.8	15.8	31.6	15.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	42.9	4.8	0.0	42.9	9.5
	기타	(21)	23.8	23.8	0.0	23.8	28.6

□ 시설 투자 계획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체 ■		(500)	69.0	31.0
정책자금 이용여부	융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65.6	34.4
	이차보전	(4)	75.0	25.0
	융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79.1	20.9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78.6	21.4
매출액	10억 미만	(172)	68.0	32.0
	50억 미만	(177)	70.1	29.9
	100억 미만	(76)	72.4	27.6
	300억 미만	(61)	62.3	37.7
	300억 이상	(14)	78.6	21.4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62.2	37.8
	10인 미만	(124)	71.8	28.2
	50인 미만	(206)	70.9	29.1
	100인 미만	(27)	66.7	33.3
	100인 이상	(16)	81.3	18.8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70.4	29.6
	5~10년 미만	(113)	71.7	28.3
	10~15년 미만	(63)	71.4	28.6
	15~20년 미만	(30)	70.0	30.0
	20년 이상	(91)	60.4	39.6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66.8	33.2
	10~50억 미만	(173)	71.1	28.9
	50억 이상	(59)	72.9	27.1
업종	제조업	(347)	73.8	26.2
	도매 및 소매업	(49)	61.2	38.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49.1	50.9
	기타	(51)	64.7	35.3

□ 시설 투자 일정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24년 4/4분기	25년 1/4분기	25년 2/4분기	25년 3/4분기	25년 4/4분기
■ 전체 ■		(345)	14.8	44.3	19.1	8.7	13.1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244)	14.3	43.9	20.1	7.8	13.9
	이차보전	(3)	0.0	0.0	33.3	66.7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87)	16.1	46.0	17.2	9.2	11.5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1)	18.2	54.5	9.1	9.1	9.1
매출액	10억 미만	(117)	12.0	41.0	19.7	7.7	19.7
	50억 미만	(124)	12.1	46.8	20.2	10.5	10.5
	100억 미만	(55)	16.4	49.1	18.2	7.3	9.1
	300억 미만	(38)	23.7	42.1	15.8	7.9	10.5
	300억 이상	(11)	36.4	36.4	18.2	9.1	0.0
종업원수	5인 미만	(79)	8.9	38.0	24.1	12.7	16.5
	10인 미만	(89)	11.2	48.3	16.9	9.0	14.6
	50인 미만	(146)	17.8	45.9	16.4	8.2	11.6
	100인 미만	(18)	16.7	44.4	27.8	0.0	11.1
	100인 이상	(13)	38.5	38.5	23.1	0.0	0.0
업력구분	5년 미만	(143)	16.8	37.8	19.6	10.5	15.4
	5~10년 미만	(81)	12.3	46.9	16.0	9.9	14.8
	10~15년 미만	(45)	13.3	48.9	22.2	6.7	8.9
	15~20년 미만	(21)	19.0	42.9	19.0	9.5	9.5
	20년 이상	(55)	12.7	54.5	20.0	3.6	9.1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179)	11.7	44.7	18.4	10.1	15.1
	10~50억 미만	(123)	16.3	42.3	21.1	7.3	13.0
	50억 이상	(43)	23.3	48.8	16.3	7.0	4.7
업종	제조업	(256)	12.9	46.9	19.5	8.6	12.1
	도매 및 소매업	(30)	13.3	46.7	13.3	13.3	13.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	11.5	30.8	26.9	7.7	23.1
	기타	(33)	33.3	33.3	15.2	6.1	12.1

□ 시설 투자 대상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설비투자(기계)	토지 또는 건축, 사업장 매입	설비투자 + 토지 또는 건축, 사업장 매입	기타
■ 전체 ■		(345)	40.6	19.4	34.5	5.5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244)	41.0	22.5	30.7	5.7
	이차보전	(3)	33.3	0.0	66.7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87)	41.4	12.6	44.8	1.1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1)	27.3	9.1	27.3	36.4
매출액	10억 미만	(117)	38.5	23.9	31.6	6.0
	50억 미만	(124)	40.3	17.7	38.7	3.2
	100억 미만	(55)	52.7	10.9	25.5	10.9
	300억 미만	(38)	31.6	23.7	39.5	5.3
	300억 이상	(11)	36.4	18.2	45.5	0.0
종업원수	5인 미만	(79)	49.4	13.9	31.6	5.1
	10인 미만	(89)	42.7	28.1	29.2	0.0
	50인 미만	(146)	36.3	16.4	38.4	8.9
	100인 미만	(18)	33.3	16.7	44.4	5.6
	100인 이상	(13)	30.8	30.8	30.8	7.7
업력구분	5년 미만	(143)	32.9	23.8	37.8	5.6
	5~10년 미만	(81)	38.3	18.5	35.8	7.4
	10~15년 미만	(45)	42.2	15.6	37.8	4.4
	15~20년 미만	(21)	52.4	19.0	23.8	4.8
	20년 이상	(55)	58.2	12.7	25.5	3.6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179)	32.4	25.1	35.8	6.7
	10~50억 미만	(123)	48.0	14.6	33.3	4.1
	50억 이상	(43)	53.5	9.3	32.6	4.7
업종	제조업	(256)	49.6	15.2	32.4	2.7
	도매 및 소매업	(30)	13.3	26.7	50.0	1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	15.4	34.6	42.3	7.7
	기타	(33)	15.2	33.3	30.3	21.2

□ 시설 투자 목적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생산성 향상 (노후기계 교체)	디지털전환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거래업체 납품 물량 증가	중대재해처 벌법 대응	탄소중립 대응	기타
■ 전체 ■		(345)	29.3	20.6	35.1	0.6	2.6	11.8
정책자금 이용여부	융자(직접대출, 대리대출)	(244)	30.3	20.5	32.8	0.8	2.9	12.7
	이차보전	(3)	33.3	33.3	33.3	0.0	0.0	0.0
	융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87)	27.6	23.0	37.9	0.0	2.3	9.2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1)	18.2	0.0	63.6	0.0	0.0	18.2
매출액	10억 미만	(117)	22.2	22.2	40.2	0.0	5.1	10.3
	50억 미만	(124)	31.5	18.5	31.5	0.8	1.6	16.1
	100억 미만	(55)	36.4	21.8	32.7	1.8	0.0	7.3
	300억 미만	(38)	39.5	21.1	26.3	0.0	0.0	13.2
	300억 이상	(11)	9.1	18.2	63.6	0.0	9.1	0.0
종업원수	5인 미만	(79)	25.3	20.3	41.8	0.0	5.1	7.6
	10인 미만	(89)	33.7	19.1	34.8	0.0	3.4	9.0
	50인 미만	(146)	29.5	20.5	33.6	1.4	0.7	14.4
	100인 미만	(18)	33.3	22.2	16.7	0.0	5.6	22.2
	100인 이상	(13)	15.4	30.8	38.5	0.0	0.0	15.4
업력구분	5년 미만	(143)	25.2	20.3	42.0	0.0	2.1	10.5
	5~10년 미만	(81)	25.9	23.5	33.3	0.0	3.7	13.6
	10~15년 미만	(45)	33.3	15.6	33.3	0.0	2.2	15.6
	15~20년 미만	(21)	42.9	19.0	28.6	4.8	0.0	4.8
	20년 이상	(55)	36.4	21.8	23.6	1.8	3.6	12.7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179)	25.1	17.9	39.1	0.6	3.9	13.4
	10~50억 미만	(123)	30.9	23.6	30.9	0.8	1.6	12.2
	50억 이상	(43)	41.9	23.3	30.2	0.0	0.0	4.7
업종	제조업	(256)	34.4	18.4	35.9	0.4	2.3	8.6
	도매 및 소매업	(30)	16.7	10.0	60.0	0.0	0.0	13.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	15.4	34.6	19.2	0.0	3.8	26.9
	기타	(33)	12.1	36.4	18.2	3.0	6.1	24.2

□ 시설투자 규모

(단위 : 개, 억)

구 분		사례수	시설 투자 규모 평균
■ 전체 ■		(345)	21.0
정책자금 이용여부	융자(직접대출, 대리대출)	(244)	19.9
	이차보전	(3)	35.0
	융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87)	23.4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1)	22.5
매출액	10억 미만	(117)	11.9
	50억 미만	(124)	20.9
	100억 미만	(55)	21.0
	300억 미만	(38)	37.8
	300억 이상	(11)	59.5
종업원수	5인 미만	(79)	9.4
	10인 미만	(89)	20.7
	50인 미만	(146)	22.9
	100인 미만	(18)	41.6
	100인 이상	(13)	42.4
업력구분	5년 미만	(143)	20.0
	5~10년 미만	(81)	20.9
	10~15년 미만	(45)	23.7
	15~20년 미만	(21)	20.8
	20년 이상	(55)	21.3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179)	18.4
	10~50억 미만	(123)	19.9
	50억 이상	(43)	34.9
업종	제조업	(256)	19.1
	도매 및 소매업	(30)	44.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	15.7
	기타	(33)	17.8

□ 시설투자 자원 조달 방식

(1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정책자금 (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 출)	정책자금 (중진공) + 시중은행 대출 매칭	시중은행 대출+보 증기관(신 기보 등)	시중은행 대출	투자유치 또는 회사채	자체자금	기타
■ 전체 ■		(345)	60.9	14.5	7.5	2.9	6.7	7.2	0.3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244)	61.9	10.7	9.0	2.5	7.8	8.2	0.0
	이차보전	(3)	66.7	0.0	33.3	0.0	0.0	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87)	60.9	20.7	3.4	4.6	4.6	4.6	1.1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1)	36.4	54.5	0.0	0.0	0.0	9.1	0.0
매출액	10억 미만	(117)	62.4	12.0	10.3	0.0	9.4	5.1	0.9
	50억 미만	(124)	55.6	19.4	7.3	4.8	5.6	7.3	0.0
	100억 미만	(55)	67.3	7.3	7.3	5.5	3.6	9.1	0.0
	300억 미만	(38)	65.8	15.8	0.0	0.0	5.3	13.2	0.0
	300억 이상	(11)	54.5	18.2	9.1	9.1	9.1	0.0	0.0
종업원수	5인 미만	(79)	65.8	8.9	13.9	0.0	5.1	5.1	1.3
	10인 미만	(89)	64.0	13.5	3.4	4.5	6.7	7.9	0.0
	50인 미만	(146)	55.5	17.8	7.5	3.4	7.5	8.2	0.0
	100인 미만	(18)	72.2	22.2	0.0	0.0	0.0	5.6	0.0
	100인 이상	(13)	53.8	7.7	7.7	7.7	15.4	7.7	0.0
업력구분	5년 미만	(143)	67.8	11.2	6.3	2.8	5.6	5.6	0.7
	5~10년 미만	(81)	65.4	12.3	9.9	2.5	6.2	3.7	0.0
	10~15년 미만	(45)	46.7	17.8	8.9	4.4	15.6	6.7	0.0
	15~20년 미만	(21)	71.4	14.3	4.8	0.0	0.0	9.5	0.0
	20년 이상	(55)	43.6	23.6	7.3	3.6	5.5	16.4	0.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179)	64.8	13.4	6.1	1.1	7.3	6.7	0.6
	10~50억 미만	(123)	55.3	18.7	10.6	4.1	6.5	4.9	0.0
	50억 이상	(43)	60.5	7.0	4.7	7.0	4.7	16.3	0.0
업종	제조업	(256)	60.2	14.8	7.0	3.1	6.6	7.8	0.4
	도매 및 소매업	(30)	50.0	16.7	16.7	6.7	0.0	1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	69.2	7.7	3.8	0.0	15.4	3.8	0.0
	기타	(33)	69.7	15.2	6.1	0.0	6.1	3.0	0.0

□ 증진공 정책자금이 경영환경 개선 도움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 전체 ■	(500)	0.0	1.0	2.8	25.4	70.8	1.0	96.2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0.0	1.3	3.0	27.4	68.3	1.3	95.7
	이차보전	(4)	0.0	0.0	25.0	0.0	75.0	0.0	75.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0.0	0.0	1.8	19.1	79.1	0.0	98.2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14)	0.0	0.0	0.0	28.6	71.4	0.0	100.0
매출액	10억 미만	(172)	0.0	1.7	3.5	25.6	69.2	1.7	94.8
	50억 미만	(177)	0.0	0.6	2.8	32.2	64.4	0.6	96.6
	100억 미만	(76)	0.0	0.0	1.3	18.4	80.3	0.0	98.7
	300억 미만	(61)	0.0	1.6	1.6	18.0	78.7	1.6	96.7
	300억 이상	(14)	0.0	0.0	7.1	7.1	85.7	0.0	92.9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0.0	0.0	5.5	22.8	71.7	0.0	94.5
	10인 미만	(124)	0.0	2.4	1.6	34.7	61.3	2.4	96.0
	50인 미만	(206)	0.0	0.0	2.4	22.8	74.8	0.0	97.6
	100인 미만	(27)	0.0	0.0	0.0	18.5	81.5	0.0	100.0
	100인 이상	(16)	0.0	12.5	0.0	18.8	68.8	12.5	87.5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0.0	1.0	4.4	26.1	68.5	1.0	94.6
	5~10년 미만	(113)	0.0	1.8	2.7	25.7	69.9	1.8	95.6
	10~15년 미만	(63)	0.0	0.0	0.0	25.4	74.6	0.0	100.0
	15~20년 미만	(30)	0.0	0.0	3.3	23.3	73.3	0.0	96.7
	20년 이상	(91)	0.0	1.1	1.1	24.2	73.6	1.1	97.8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0.0	1.1	4.5	26.5	67.9	1.1	94.4
	10~50억 미만	(173)	0.0	0.6	1.2	27.2	71.1	0.6	98.3
	50억 이상	(59)	0.0	1.7	0.0	15.3	83.1	1.7	98.3
업종	제조업	(347)	0.0	0.9	2.0	23.6	73.5	0.9	97.1
	도매 및 소매업	(49)	0.0	0.0	4.1	30.6	65.3	0.0	95.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0.0	1.9	3.8	28.3	66.0	1.9	94.3
	기타	(51)	0.0	2.0	5.9	29.4	62.7	2.0	92.2

□ 정책자금 활용 용도

(1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원부자재 조달	인건비 조달	설비 구입	연구개발 비용	판로 및 시장 개척비	사업장 매입	기타
■ 전체 ■		(481)	42.4	18.5	14.3	8.3	5.0	11.0	0.5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56)	43.3	20.8	11.0	8.1	5.3	11.0	0.6
	이차보전	(3)	66.7	0.0	33.3	0.0	0.0	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08)	40.7	10.2	24.1	8.3	3.7	13.0	0.0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14)	28.6	28.6	21.4	14.3	7.1	0.0	0.0
매출액	10억 미만	(163)	35.0	32.5	8.6	11.0	4.9	8.0	0.0
	50억 미만	(171)	41.5	15.2	17.5	8.2	6.4	11.1	0.0
	100억 미만	(75)	54.7	6.7	12.0	5.3	2.7	17.3	1.3
	300억 미만	(59)	49.2	8.5	18.6	6.8	3.4	11.9	1.7
	300억 이상	(13)	46.2	0.0	38.5	0.0	7.7	7.7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0)	51.7	21.7	8.3	7.5	1.7	9.2	0.0
	10인 미만	(119)	44.5	16.8	12.6	6.7	5.9	12.6	0.8
	50인 미만	(201)	39.8	15.9	15.9	9.5	7.0	11.9	0.0
	100인 미만	(27)	18.5	22.2	33.3	11.1	0.0	11.1	3.7
	100인 이상	(14)	28.6	35.7	21.4	7.1	7.1	0.0	0.0
업력구분	5년 미만	(192)	44.3	25.5	9.4	8.3	4.2	8.3	0.0
	5~10년 미만	(108)	35.2	13.0	19.4	11.1	8.3	12.0	0.9
	10~15년 미만	(63)	42.9	19.0	15.9	6.3	1.6	14.3	0.0
	15~20년 미만	(29)	37.9	6.9	27.6	10.3	6.9	10.3	0.0
	20년 이상	(89)	48.3	13.5	13.5	5.6	4.5	13.5	1.1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53)	39.9	28.1	7.9	9.9	7.1	7.1	0.0
	10~50억 미만	(170)	44.7	9.4	18.2	7.6	3.5	15.3	1.2
	50억 이상	(58)	46.6	3.4	31.0	3.4	0.0	15.5	0.0
업종	제조업	(337)	50.4	10.4	18.4	7.4	2.1	11.0	0.3
	도매 및 소매업	(47)	46.8	10.6	6.4	0.0	12.8	21.3	2.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	12.0	54.0	2.0	24.0	4.0	4.0	0.0
	기타	(47)	12.8	46.8	6.4	6.4	19.1	8.5	0.0

(1+2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원부자재 조달	인건비 조달	설비 구입	연구개발 비용	판로 및 시장 개척비	사업장 매입	기타	
■ 전체 ■	(481)	59.7	47.8	31.2	26.0	17.7	15.2	1.9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56)	59.0	51.4	25.8	28.1	18.0	14.9	2.0
	이차보전	(3)	66.7	33.3	66.7	0.0	0.0	33.3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08)	65.7	37.0	44.4	20.4	14.8	15.7	1.9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28.6	42.9	57.1	21.4	35.7	14.3	0.0
매출액	10억 미만	(163)	59.7	47.8	31.2	26.0	17.7	15.2	1.9
	50억 미만	(171)	51.5	62.6	20.9	36.2	17.2	10.4	1.2
	100억 미만	(75)	59.6	46.2	33.9	22.8	18.1	16.4	2.3
	300억 미만	(59)	68.0	33.3	37.3	20.0	16.0	20.0	2.7
	300억 이상	(13)	71.2	35.6	37.3	18.6	20.3	15.3	1.7
종업원수	5인 미만	(120)	61.5	23.1	61.5	7.7	15.4	30.8	0.0
	10인 미만	(119)	59.7	47.8	31.2	26.0	17.7	15.2	1.9
	50인 미만	(201)	65.8	56.7	20.8	26.7	17.5	10.0	2.5
	100인 미만	(27)	62.2	50.4	25.2	25.2	17.6	16.8	0.8
	100인 이상	(14)	57.7	41.3	36.3	27.9	18.9	15.9	1.5
업력구분	5년 미만	(192)	40.7	33.3	59.3	22.2	11.1	25.9	7.4
	5~10년 미만	(108)	50.0	71.4	42.9	7.1	14.3	14.3	0.0
	10~15년 미만	(63)	59.7	47.8	31.2	26.0	17.7	15.2	1.9
	15~20년 미만	(29)	58.9	64.6	22.9	27.6	13.5	10.4	1.0
	20년 이상	(89)	50.9	36.1	34.3	31.5	24.1	20.4	2.8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53)	63.5	42.9	42.9	19.0	12.7	17.5	1.6
	10~50억 미만	(170)	65.5	31.0	55.2	20.7	13.8	10.3	0.0
	50억 이상	(58)	67.4	34.8	29.2	22.5	23.6	19.1	3.4
업종	제조업	(337)	59.7	47.8	31.2	26.0	17.7	15.2	1.9
	도매 및 소매업	(47)	54.9	61.3	19.0	31.6	20.2	10.3	2.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	63.5	34.1	41.8	21.8	15.9	20.0	1.8
	기타	(47)	69.0	29.3	53.4	13.8	12.1	22.4	0.0

□ 정책자금의 효과

(1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매출액 향상	고용 효과	수출 확대	사업 확장	생산성 향상	여유자금 확보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기타	
■ 전체 ■	(481)	35.1	11.4	3.3	16.4	10.0	7.9	15.4	0.5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56)	34.8	12.9	2.8	16.6	11.0	8.7	12.9	0.3
	이차보전	(3)	66.7	0.0	0.0	0.0	0.0	0.0	33.3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08)	34.3	7.4	5.6	17.6	4.6	6.5	23.1	0.9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42.9	7.1	0.0	7.1	28.6	0.0	14.3	0.0
매출액	10억 미만	(163)	31.9	12.3	3.1	17.2	8.6	11.0	16.0	0.0
	50억 미만	(171)	32.2	12.9	2.9	18.1	9.4	8.2	15.8	0.6
	100억 미만	(75)	40.0	10.7	4.0	18.7	14.7	2.7	9.3	0.0
	300억 미만	(59)	42.4	5.1	5.1	8.5	10.2	6.8	22.0	0.0
	300억 이상	(13)	53.8	15.4	0.0	7.7	7.7	0.0	7.7	7.7
종업원수	5인 미만	(120)	35.8	5.0	4.2	16.7	10.8	10.0	16.7	0.8
	10인 미만	(119)	38.7	14.3	2.5	21.0	2.5	6.7	14.3	0.0
	50인 미만	(201)	32.8	12.9	3.5	14.4	13.9	7.5	14.4	0.5
	100인 미만	(27)	33.3	11.1	3.7	14.8	11.1	7.4	18.5	0.0
	100인 이상	(14)	35.7	21.4	0.0	7.1	7.1	7.1	21.4	0.0
업력구분	5년 미만	(192)	33.9	13.0	2.6	16.7	7.8	10.4	15.6	0.0
	5~10년 미만	(108)	36.1	11.1	1.9	18.5	12.0	5.6	14.8	0.0
	10~15년 미만	(63)	38.1	7.9	6.3	20.6	6.3	6.3	12.7	1.6
	15~20년 미만	(29)	27.6	17.2	0.0	13.8	13.8	3.4	20.7	3.4
	20년 이상	(89)	37.1	9.0	5.6	11.2	13.5	7.9	15.7	0.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53)	33.6	14.6	2.4	16.2	8.7	10.3	13.8	0.4
	10~50억 미만	(170)	35.9	7.6	4.1	19.4	8.2	6.5	17.6	0.6
	50억 이상	(58)	39.7	8.6	5.2	8.6	20.7	1.7	15.5	0.0
업종	제조업	(337)	37.1	8.0	3.3	14.8	11.9	6.8	17.5	0.6
	도매 및 소매업	(47)	40.4	14.9	6.4	25.5	2.1	6.4	4.3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	28.0	26.0	0.0	18.0	6.0	14.0	8.0	0.0
	기타	(47)	23.4	17.0	4.3	17.0	8.5	10.6	19.1	0.0

(1+2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매출액 향상	고용 효과	수출 확대	사업 확장	생산성 향상	여유자금 확보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기타	
■ 전체 ■	(481)	49.1	34.3	8.1	31.8	23.7	22.5	28.9	1.0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56)	49.4	35.7	7.3	33.7	23.3	23.6	25.6	0.8
	이차보전	(3)	66.7	33.3	0.0	0.0	0.0	66.7	33.3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08)	47.2	30.6	12.0	28.7	23.1	15.7	39.8	1.9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50.0	28.6	0.0	14.3	42.9	35.7	28.6	0.0
매출액	10억 미만	(163)	49.1	34.3	8.1	31.8	23.7	22.5	28.9	1.0
	50억 미만	(171)	47.9	35.0	7.4	30.7	20.2	27.0	30.1	1.2
	100억 미만	(75)	42.1	33.3	6.4	35.1	25.7	24.6	31.6	0.6
	300억 미만	(59)	58.7	41.3	13.3	22.7	22.7	14.7	24.0	1.3
	300억 이상	(13)	57.6	22.0	6.8	37.3	30.5	16.9	28.8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0)	61.5	53.8	15.4	30.8	15.4	7.7	7.7	7.7
	10인 미만	(119)	49.1	34.3	8.1	31.8	23.7	22.5	28.9	1.0
	50인 미만	(201)	50.0	25.8	7.5	30.0	26.7	26.7	30.8	1.7
	100인 미만	(27)	49.6	38.7	5.0	37.0	16.8	20.2	30.3	0.8
	100인 이상	(14)	49.3	35.8	10.9	28.9	24.9	20.9	28.9	0.5
업력구분	5년 미만	(192)	40.7	29.6	7.4	40.7	40.7	18.5	18.5	3.7
	5~10년 미만	(108)	50.0	57.1	0.0	28.6	7.1	35.7	21.4	0.0
	10~15년 미만	(63)	49.1	34.3	8.1	31.8	23.7	22.5	28.9	1.0
	15~20년 미만	(29)	45.8	35.9	6.3	33.9	20.8	26.0	29.2	0.5
	20년 이상	(89)	49.1	36.1	6.5	37.0	25.9	15.7	29.6	0.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53)	52.4	30.2	9.5	30.2	22.2	22.2	28.6	4.8
	10~50억 미만	(170)	41.4	44.8	3.4	24.1	37.9	13.8	31.0	3.4
	50억 이상	(58)	56.2	28.1	14.6	24.7	23.6	25.8	27.0	0.0
업종	제조업	(337)	49.1	34.3	8.1	31.8	23.7	22.5	28.9	1.0
	도매 및 소매업	(47)	45.5	37.2	5.5	32.4	22.1	28.9	26.5	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0)	51.8	32.4	10.6	34.7	22.9	14.1	31.8	1.2
	기타	(47)	56.9	27.6	12.1	20.7	32.8	19.0	31.0	0.0

□ 선호하는 정책금융 지원 방식

(1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정책자금 (중진공) 직접대출	정책자금 (중진공) 대리대출	전환 사채, 상환 전환 우선주 등 투자 방식	신·기보 보증서	민간 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팩토링 금융	네트워 크론	기타
■ 전체 ■	(500)	91.8	2.4	2.0	2.6	0.8	0.2	0.2	0.0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92.7	2.2	1.3	3.0	0.3	0.3	0.0
	이자보전	(4)	75.0	0.0	0.0	25.0	0.0	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88.2	3.6	4.5	0.9	2.7	0.0	0.0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100.0	0.0	0.0	0.0	0.0	0.0	0.0
매출액	10억 미만	(172)	90.7	1.2	2.3	4.7	0.0	0.6	0.6
	50억 미만	(177)	93.2	2.3	1.7	1.7	1.1	0.0	0.0
	100억 미만	(76)	92.1	5.3	1.3	1.3	0.0	0.0	0.0
	300억 미만	(61)	90.2	3.3	3.3	1.6	1.6	0.0	0.0
	300억 이상	(14)	92.9	0.0	0.0	0.0	7.1	0.0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94.5	0.8	0.8	3.1	0.0	0.8	0.0
	10인 미만	(124)	90.3	4.0	0.8	4.0	0.8	0.0	0.0
	50인 미만	(206)	92.2	2.9	2.9	1.5	0.0	0.0	0.5
	100인 미만	(27)	88.9	0.0	7.4	0.0	3.7	0.0	0.0
	100인 이상	(16)	81.3	0.0	0.0	6.3	12.5	0.0	0.0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92.1	1.5	1.5	3.9	0.5	0.5	0.0
	5~10년 미만	(113)	84.1	4.4	5.3	4.4	0.9	0.0	0.9
	10~15년 미만	(63)	100.0	0.0	0.0	0.0	0.0	0.0	0.0
	15~20년 미만	(30)	93.3	6.7	0.0	0.0	0.0	0.0	0.0
	20년 이상	(91)	94.5	2.2	1.1	0.0	2.2	0.0	0.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93.7	1.5	1.1	3.0	0.0	0.4	0.4
	10~50억 미만	(173)	89.0	3.5	3.5	2.9	1.2	0.0	0.0
	50억 이상	(59)	91.5	3.4	1.7	0.0	3.4	0.0	0.0
업종	제조업	(347)	92.5	2.9	1.2	2.0	0.9	0.3	0.3
	도매 및 소매업	(49)	95.9	2.0	0.0	2.0	0.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81.1	1.9	7.5	9.4	0.0	0.0	0.0
	기타	(51)	94.1	0.0	3.9	0.0	2.0	0.0	0.0

(1+2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정책자금 (중진공) 직접대출	정책자금 (중진공) 대리대출	전환 사채, 상환 전환 우선주 등 투자 방식	신·기보 보증서	민간 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팩토링 금융	네트워 크론	기타	
■ 전체 ■	(500)	97.8	46.0	8.0	36.4	7.2	1.8	0.6	0.8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97.8	45.2	7.8	39.2	5.6	1.9	0.5	0.8
	이자보전	(4)	100.0	25.0	0.0	50.0	0.0	0.0	25.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97.3	48.2	10.0	27.3	12.7	1.8	0.0	0.9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14)	100.0	57.1	0.0	28.6	7.1	0.0	0.0	0.0
매출액	10억 미만	(172)	97.8	46.0	8.0	36.4	7.2	1.8	0.6	0.8
	50억 미만	(177)	98.3	42.4	8.7	40.7	4.7	1.7	0.6	1.2
	100억 미만	(76)	98.3	41.2	7.3	40.7	9.0	1.1	0.0	0.6
	300억 미만	(61)	97.4	55.3	6.6	31.6	3.9	1.3	1.3	1.3
	300억 이상	(14)	95.1	55.7	11.5	24.6	8.2	4.9	0.0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100.0	57.1	0.0	7.1	28.6	0.0	7.1	0.0
	10인 미만	(124)	97.8	46.0	8.0	36.4	7.2	1.8	0.6	0.8
	50인 미만	(206)	99.2	43.3	5.5	42.5	3.9	1.6	0.0	1.6
	100인 미만	(27)	97.6	41.1	7.3	41.1	6.5	3.2	0.0	1.6
	100인 이상	(16)	98.1	49.0	9.2	32.5	7.8	1.0	1.5	0.0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92.6	63.0	7.4	18.5	14.8	3.7	0.0	0.0
	5~10년 미만	(113)	93.8	37.5	18.8	31.3	18.8	0.0	0.0	0.0
	10~15년 미만	(63)	97.8	46.0	8.0	36.4	7.2	1.8	0.6	0.8
	15~20년 미만	(30)	98.0	44.3	7.4	40.4	5.4	1.0	0.0	1.0
	20년 이상	(91)	96.5	42.5	9.7	43.4	3.5	3.5	0.9	0.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100.0	41.3	3.2	41.3	12.7	0.0	1.6	0.0
	10~50억 미만	(173)	96.7	70.0	16.7	16.7	0.0	0.0	0.0	0.0
	50억 이상	(59)	97.8	49.5	7.7	22.0	14.3	3.3	1.1	2.2
업종	제조업	(347)	97.8	46.0	8.0	36.4	7.2	1.8	0.6	0.8
	도매 및 소매업	(49)	98.5	41.8	6.0	43.7	4.9	1.9	0.4	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97.1	48.6	11.0	30.1	9.8	1.7	0.6	0.0
	기타	(51)	96.6	57.6	8.5	22.0	10.2	1.7	1.7	1.7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장 큰 장점

(1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장기 대출 기간(운전 5년, 시설 10년)	민간금융권 보다 낮은 대출금리	민간금융권 보다 높은 대출한도	신용대출	재무평가가 아닌 기술·사업성 평가체계	기타
■ 전체 ■		(500)	52.2	37.2	1.8	2.2	6.4	0.2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53.2	37.1	1.9	1.9	5.6	0.3
	이차보전	(4)	50.0	50.0	0.0	0.0	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49.1	37.3	1.8	3.6	8.2	0.0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14)	50.0	35.7	0.0	0.0	14.3	0.0
매출액	10억 미만	(172)	47.7	34.9	2.9	1.7	12.8	0.0
	50억 미만	(177)	56.5	36.7	1.7	2.8	1.7	0.6
	100억 미만	(76)	50.0	40.8	1.3	3.9	3.9	0.0
	300억 미만	(61)	57.4	36.1	0.0	0.0	6.6	0.0
	300억 이상	(14)	42.9	57.1	0.0	0.0	0.0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48.8	34.6	3.1	3.1	10.2	0.0
	10인 미만	(124)	59.7	33.1	1.6	1.6	3.2	0.8
	50인 미만	(206)	48.1	42.7	1.5	2.4	5.3	0.0
	100인 미만	(27)	66.7	25.9	0.0	0.0	7.4	0.0
	100인 이상	(16)	50.0	37.5	0.0	0.0	12.5	0.0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50.2	37.4	3.0	2.0	6.9	0.5
	5~10년 미만	(113)	53.1	33.6	0.9	0.9	11.5	0.0
	10~15년 미만	(63)	57.1	39.7	0.0	0.0	3.2	0.0
	15~20년 미만	(30)	56.7	33.3	0.0	3.3	6.7	0.0
	20년 이상	(91)	50.5	40.7	2.2	5.5	1.1	0.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51.9	34.3	3.0	2.2	8.6	0.0
	10~50억 미만	(173)	53.2	39.3	0.6	1.7	4.6	0.6
	50억 이상	(59)	50.8	44.1	0.0	3.4	1.7	0.0
업종	제조업	(347)	52.2	37.8	1.7	2.6	5.8	0.0
	도매 및 소매업	(49)	61.2	36.7	0.0	0.0	0.0	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49.1	35.8	3.8	1.9	9.4	0.0
	기타	(51)	47.1	35.3	2.0	2.0	13.7	0.0

(1+2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장기 대출 기간(운전 5년, 시설 10년)	민간금융권 보다 낮은 대출금리	민간금융권 보다 높은 대출한도	신용대출	재무평가가 아닌 기술·사업성 평가체계	기타	
■ 전체 ■	(500)	73.6	82.8	6.8	13.6	22.6	0.2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74.5	82.8	6.7	13.4	21.8	0.3
	이차보전	(4)	75.0	100.0	25.0	0.0	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70.0	82.7	6.4	14.5	26.4	0.0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14)	78.6	78.6	7.1	14.3	21.4	0.0
매출액	10억 미만	(172)	73.6	82.8	6.8	13.6	22.6	0.2
	50억 미만	(177)	70.3	77.3	7.0	12.2	32.6	0.0
	100억 미만	(76)	74.0	86.4	7.3	14.7	16.4	0.6
	300억 미만	(61)	72.4	81.6	9.2	14.5	22.4	0.0
	300억 이상	(14)	85.2	86.9	1.6	11.5	14.8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64.3	92.9	7.1	21.4	14.3	0.0
	10인 미만	(124)	73.6	82.8	6.8	13.6	22.6	0.2
	50인 미만	(206)	70.1	82.7	9.4	10.2	26.8	0.0
	100인 미만	(27)	81.5	83.9	3.2	12.9	16.9	0.8
	100인 이상	(16)	69.9	81.6	7.8	16.5	24.3	0.0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74.1	81.5	7.4	14.8	22.2	0.0
	5~10년 미만	(113)	87.5	93.8	0.0	6.3	12.5	0.0
	10~15년 미만	(63)	73.6	82.8	6.8	13.6	22.6	0.2
	15~20년 미만	(30)	70.0	82.8	10.3	10.3	25.6	0.5
	20년 이상	(91)	77.9	82.3	6.2	9.7	23.9	0.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82.5	85.7	3.2	14.3	14.3	0.0
	10~50억 미만	(173)	83.3	80.0	3.3	10.0	23.3	0.0
	50억 이상	(59)	67.0	82.4	3.3	26.4	19.8	0.0
업종	제조업	(347)	73.6	82.8	6.8	13.6	22.6	0.2
	도매 및 소매업	(49)	71.6	81.7	7.8	11.9	26.1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74.6	82.7	5.8	15.6	20.8	0.6
	기타	(51)	79.7	88.1	5.1	15.3	11.9	0.0

□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확대 필요 분야

(1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 공유형	스케일업 (P-CBO)	매출채권 팩토링	이자보전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 전체 ■		(500)	88.8	2.8	5.2	1.4	0.2	1.4	0.2
정책자금 이용여부	응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89.5	2.4	4.6	1.9	0.3	1.1	0.3
	이자보전	(4)	100.0	0.0	0.0	0.0	0.0	0.0	0.0
	응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88.2	2.7	7.3	0.0	0.0	1.8	0.0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14)	71.4	14.3	7.1	0.0	0.0	7.1	0.0
매출액	10억 미만	(172)	87.2	1.7	7.6	1.7	0.0	1.2	0.6
	50억 미만	(177)	91.0	2.8	3.4	1.1	0.0	1.7	0.0
	100억 미만	(76)	93.4	2.6	1.3	1.3	0.0	1.3	0.0
	300억 미만	(61)	80.3	6.6	8.2	1.6	1.6	1.6	0.0
	300억 이상	(14)	92.9	0.0	7.1	0.0	0.0	0.0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89.8	1.6	6.3	0.0	0.0	1.6	0.8
	10인 미만	(124)	85.5	5.6	3.2	4.0	0.8	0.8	0.0
	50인 미만	(206)	90.3	1.9	4.9	1.0	0.0	1.9	0.0
	100인 미만	(27)	88.9	3.7	7.4	0.0	0.0	0.0	0.0
	100인 이상	(16)	87.5	0.0	12.5	0.0	0.0	0.0	0.0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87.7	3.0	4.9	1.5	0.5	2.5	0.0
	5~10년 미만	(113)	84.1	4.4	8.0	2.7	0.0	0.9	0.0
	10~15년 미만	(63)	96.8	0.0	3.2	0.0	0.0	0.0	0.0
	15~20년 미만	(30)	90.0	6.7	3.3	0.0	0.0	0.0	0.0
	20년 이상	(91)	91.2	1.1	4.4	1.1	0.0	1.1	1.1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88.4	3.0	5.2	1.5	0.0	1.5	0.4
	10~50억 미만	(173)	88.4	1.7	5.8	1.7	0.6	1.7	0.0
	50억 이상	(59)	91.5	5.1	3.4	0.0	0.0	0.0	0.0
업종	제조업	(347)	90.8	3.2	4.0	0.0	0.0	1.7	0.3
	도매 및 소매업	(49)	83.7	4.1	6.1	4.1	2.0	0.0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79.2	0.0	13.2	7.5	0.0	0.0	0.0
	기타	(51)	90.2	2.0	3.9	2.0	0.0	2.0	0.0

(1+2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 공유형	스케일업 (P-CBO)	매출채권 팩토링	이자보전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 전체 ■		(500)	94.0	50.4	21.0	5.4	4.0	19.8	4.2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94.1	50.5	20.7	6.7	4.8	16.7	5.1
	이자보전	(4)	100.0	50.0	50.0	0.0	0.0	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95.5	47.3	20.9	1.8	1.8	30.9	0.9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14)	78.6	71.4	21.4	0.0	0.0	21.4	7.1
매출액	10억 미만	(172)	94.0	50.4	21.0	5.4	4.0	19.8	4.2
	50억 미만	(177)	93.0	47.7	26.7	5.2	4.1	15.1	6.4
	100억 미만	(76)	94.9	49.7	20.3	4.5	2.8	22.0	4.5
	300억 미만	(61)	97.4	53.9	11.8	7.9	3.9	22.4	1.3
	300억 이상	(14)	88.5	57.4	16.4	6.6	8.2	21.3	1.6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100.0	42.9	28.6	0.0	0.0	28.6	0.0
	10인 미만	(124)	94.0	50.4	21.0	5.4	4.0	19.8	4.2
	50인 미만	(206)	93.7	48.8	23.6	2.4	3.9	16.5	8.7
	100인 미만	(27)	91.1	46.0	20.2	8.9	6.5	20.2	5.6
	100인 이상	(16)	96.1	52.9	20.4	4.4	3.4	20.9	1.5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92.6	55.6	18.5	11.1	0.0	22.2	0.0
	5~10년 미만	(113)	93.8	56.3	18.8	6.3	0.0	25.0	0.0
	10~15년 미만	(63)	94.0	50.4	21.0	5.4	4.0	19.8	4.2
	15~20년 미만	(30)	94.1	51.7	22.2	3.9	4.4	17.7	3.9
	20년 이상	(91)	89.4	47.8	25.7	6.2	4.4	18.6	8.0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96.8	50.8	17.5	6.3	4.8	22.2	1.6
	10~50억 미만	(173)	96.7	60.0	13.3	10.0	3.3	16.7	0.0
	50억 이상	(59)	96.7	47.3	17.6	5.5	2.2	25.3	3.3
업종	제조업	(347)	94.0	50.4	21.0	5.4	4.0	19.8	4.2
	도매 및 소매업	(49)	93.3	49.6	24.3	3.4	3.7	17.5	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94.2	48.6	19.7	7.5	5.2	22.0	2.3
	기타	(51)	96.6	59.3	10.2	8.5	1.7	23.7	0.0

□ 기업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예산 확대 필요시기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전주기
■ 전체 ■		(500)	28.4	49.8	14.0	7.8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32.0	47.0	14.5	6.5
	이차보전	(4)	25.0	50.0	25.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17.3	58.2	11.8	12.7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21.4	57.1	14.3	7.1
매출액	10억 미만	(172)	49.4	34.3	9.3	7.0
	50억 미만	(177)	23.2	55.4	13.0	8.5
	100억 미만	(76)	15.8	60.5	19.7	3.9
	300억 미만	(61)	6.6	62.3	18.0	13.1
	300억 이상	(14)	0.0	57.1	35.7	7.1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43.3	35.4	14.2	7.1
	10인 미만	(124)	36.3	45.2	12.1	6.5
	50인 미만	(206)	19.9	59.7	12.6	7.8
	100인 미만	(27)	0.0	59.3	25.9	14.8
	100인 이상	(16)	6.3	56.3	25.0	12.5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57.6	28.1	6.4	7.9
	5~10년 미만	(113)	13.3	74.3	6.2	6.2
	10~15년 미만	(63)	6.3	61.9	27.0	4.8
	15~20년 미만	(30)	6.7	66.7	26.7	0.0
	20년 이상	(91)	4.4	53.8	27.5	14.3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41.0	41.8	9.3	7.8
	10~50억 미만	(173)	16.2	57.2	17.9	8.7
	50억 이상	(59)	6.8	64.4	23.7	5.1
업종	제조업	(347)	28.5	50.7	13.3	7.5
	도매 및 소매업	(49)	18.4	46.9	26.5	8.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28.3	47.2	15.1	9.4
	기타	(51)	37.3	49.0	5.9	7.8

□ 우량기업 용자제한 적정성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제한 기준 완화 필요	현재 수준 적정함	제한 기준 강화 필요
■ 전체 ■		(500)	44.8	44.8	10.4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44.9	43.5	11.6
	이차보전	(4)	50.0	25.0	25.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45.5	50.0	4.5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35.7	42.9	21.4
매출액	10억 미만	(172)	37.8	45.9	16.3
	50억 미만	(177)	45.8	45.2	9.0
	100억 미만	(76)	48.7	43.4	7.9
	300억 미만	(61)	54.1	42.6	3.3
	300억 이상	(14)	57.1	42.9	0.0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36.2	49.6	14.2
	10인 미만	(124)	42.7	45.2	12.1
	50인 미만	(206)	48.1	43.2	8.7
	100인 미만	(27)	66.7	33.3	0.0
	100인 이상	(16)	50.0	43.8	6.3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38.4	47.8	13.8
	5~10년 미만	(113)	48.7	41.6	9.7
	10~15년 미만	(63)	50.8	41.3	7.9
	15~20년 미만	(30)	50.0	46.7	3.3
	20년 이상	(91)	48.4	44.0	7.7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39.9	47.4	12.7
	10~50억 미만	(173)	50.3	41.6	8.1
	50억 이상	(59)	50.8	42.4	6.8
업종	제조업	(347)	44.4	44.7	11.0
	도매 및 소매업	(49)	59.2	38.8	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35.8	50.9	13.2
	기타	(51)	43.1	45.1	11.8

□ 우량기업 지원제한 예외 사유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우량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시설투자 계획 중인 우량기업 지원	일시적 애로를 겪는 우량기업 지원	성과창출 (고용·수출·매출) 우량기업 지원
■ 전체 ■		(500)	11.2	21.8	44.6	22.4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11.0	20.7	44.6	23.7
	이차보전	(4)	25.0	25.0	5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10.9	24.5	43.6	20.9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14.3	28.6	50.0	7.1
매출액	10억 미만	(172)	15.7	18.6	45.3	20.3
	50억 미만	(177)	9.6	22.0	42.4	26.0
	100억 미만	(76)	3.9	22.4	55.3	18.4
	300억 미만	(61)	13.1	24.6	41.0	21.3
	300억 이상	(14)	7.1	42.9	21.4	28.6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15.0	20.5	43.3	21.3
	10인 미만	(124)	10.5	20.2	42.7	26.6
	50인 미만	(206)	7.8	22.3	49.0	20.9
	100인 미만	(27)	18.5	37.0	29.6	14.8
	100인 이상	(16)	18.8	12.5	37.5	31.3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11.3	24.1	43.3	21.2
	5~10년 미만	(113)	15.9	14.2	38.1	31.9
	10~15년 미만	(63)	6.3	25.4	57.1	11.1
	15~20년 미만	(30)	6.7	30.0	36.7	26.7
	20년 이상	(91)	9.9	20.9	49.5	19.8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14.9	19.8	42.9	22.4
	10~50억 미만	(173)	6.4	24.3	46.2	23.1
	50억 이상	(59)	8.5	23.7	47.5	20.3
업종	제조업	(347)	11.0	24.8	44.1	20.2
	도매 및 소매업	(49)	10.2	20.4	44.9	24.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15.1	9.4	49.1	26.4
	기타	(51)	9.8	15.7	43.1	31.4

□ 대리대출 방식 필요성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 전체 ■		(500)	68.6	31.4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68.3	31.7
	이차보전	(4)	100.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66.4	33.6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85.7	14.3
매출액	10억 미만	(172)	66.9	33.1
	50억 미만	(177)	68.9	31.1
	100억 미만	(76)	65.8	34.2
	300억 미만	(61)	73.8	26.2
	300억 이상	(14)	78.6	21.4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62.2	37.8
	10인 미만	(124)	73.4	26.6
	50인 미만	(206)	68.9	31.1
	100인 미만	(27)	74.1	25.9
	100인 이상	(16)	68.8	31.3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70.9	29.1
	5~10년 미만	(113)	71.7	28.3
	10~15년 미만	(63)	60.3	39.7
	15~20년 미만	(30)	80.0	20.0
	20년 이상	(91)	61.5	38.5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67.2	32.8
	10~50억 미만	(173)	69.4	30.6
	50억 이상	(59)	72.9	27.1
업종	제조업	(347)	66.0	34.0
	도매 및 소매업	(49)	83.7	1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67.9	32.1
	기타	(51)	72.5	27.5

□ 대리대출 방식이 필요한 사유

(1순위 응답 기준/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주거래은행으로 대출창구 일원화	중진공이 1순위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정책자금 재원한계 보완	주담보 취득 은행을 통한 대환 가능	주거래은행 우대혜택 및 시중은행지점의 높은 접근성	
■ 전체 ■	(343)	55.7	7.9	15.5	13.7	7.2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254)	57.1	6.7	15.7	13.4	7.1
	이차보전	(4)	50.0	25.0	0.0	25.0	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73)	52.1	12.3	13.7	15.1	6.8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2)	50.0	0.0	25.0	8.3	16.7
매출액	10억 미만	(115)	46.1	8.7	14.8	20.0	10.4
	50억 미만	(122)	59.8	5.7	14.8	14.8	4.9
	100억 미만	(50)	58.0	8.0	24.0	4.0	6.0
	300억 미만	(45)	68.9	8.9	6.7	6.7	8.9
	300억 이상	(11)	45.5	18.2	27.3	9.1	0.0
종업원수	5인 미만	(79)	54.4	5.1	12.7	17.7	10.1
	10인 미만	(91)	53.8	7.7	16.5	14.3	7.7
	50인 미만	(142)	55.6	9.9	16.2	11.3	7.0
	100인 미만	(20)	70.0	5.0	15.0	10.0	0.0
	100인 이상	(11)	54.5	9.1	18.2	18.2	0.0
업력구분	5년 미만	(144)	56.3	5.6	13.9	17.4	6.9
	5~10년 미만	(81)	51.9	7.4	21.0	8.6	11.1
	10~15년 미만	(38)	63.2	15.8	7.9	13.2	0.0
	15~20년 미만	(24)	50.0	16.7	16.7	8.3	8.3
	20년 이상	(56)	57.1	5.4	16.1	14.3	7.1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180)	52.8	7.2	13.3	16.7	10.0
	10~50억 미만	(120)	60.8	6.7	18.3	11.7	2.5
	50억 이상	(43)	53.5	14.0	16.3	7.0	9.3
업종	제조업	(229)	55.0	6.6	17.0	14.4	7.0
	도매 및 소매업	(41)	56.1	9.8	14.6	12.2	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6)	55.6	8.3	11.1	13.9	11.1
	기타	(37)	59.5	13.5	10.8	10.8	5.4

□ 「마일스톤 방식의 정책자금 프로그램」 필요성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 전체 ■	(500)	0.6	0.8	13.4	33.8	51.4	1.4	85.2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0.5	0.5	11.8	36.6	50.5	1.1	87.1
	이차보전	(4)	0.0	0.0	25.0	25.0	50.0	0.0	75.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0.9	0.9	19.1	27.3	51.8	1.8	79.1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차 지원)	(14)	0.0	7.1	7.1	14.3	71.4	7.1	85.7
매출액	10억 미만	(172)	0.6	1.7	8.7	30.8	58.1	2.3	89.0
	50억 미만	(177)	0.0	0.0	15.8	37.9	46.3	0.0	84.2
	100억 미만	(76)	0.0	0.0	14.5	32.9	52.6	0.0	85.5
	300억 미만	(61)	1.6	1.6	16.4	34.4	45.9	3.3	80.3
	300억 이상	(14)	7.1	0.0	21.4	21.4	50.0	7.1	71.4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0.0	2.4	11.0	28.3	58.3	2.4	86.6
	10인 미만	(124)	0.8	0.0	11.3	38.7	49.2	0.8	87.9
	50인 미만	(206)	0.5	0.0	15.0	35.0	49.5	0.5	84.5
	100인 미만	(27)	0.0	3.7	7.4	37.0	51.9	3.7	88.9
	100인 이상	(16)	6.3	0.0	37.5	18.8	37.5	6.3	56.3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0.5	1.0	12.3	31.0	55.2	1.5	86.2
	5~10년 미만	(113)	0.0	0.9	11.5	32.7	54.9	0.9	87.6
	10~15년 미만	(63)	0.0	0.0	17.5	33.3	49.2	0.0	82.5
	15~20년 미만	(30)	3.3	0.0	6.7	40.0	50.0	3.3	90.0
	20년 이상	(91)	1.1	1.1	17.6	39.6	40.7	2.2	80.2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0.0	1.1	13.4	32.1	53.4	1.1	85.4
	10~50억 미만	(173)	0.6	0.6	11.6	37.6	49.7	1.2	87.3
	50억 이상	(59)	3.4	0.0	18.6	30.5	47.5	3.4	78.0
업종	제조업	(347)	0.3	0.9	13.3	34.6	51.0	1.2	85.6
	도매 및 소매업	(49)	2.0	0.0	10.2	34.7	53.1	2.0	87.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0.0	1.9	15.1	35.8	47.2	1.9	83.0
	기타	(51)	2.0	0.0	15.7	25.5	56.9	2.0	82.4

□ 향후 他 기관(민간·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도입 필요성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 전체 ■	(500)	0.0	0.4	12.6	35.0	52.0	0.4	87.0	
정책자금 이용여부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372)	0.0	0.3	12.9	35.5	51.3	0.3	86.8
	이차보전	(4)	0.0	0.0	0.0	25.0	75.0	0.0	100.0
	용자(직접대출, 대리대출) + 이차보전	(110)	0.0	0.9	10.9	33.6	54.5	0.9	88.2
	비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소상공인 은행 대출의 이자 지원)	(14)	0.0	0.0	21.4	35.7	42.9	0.0	78.6
매출액	10억 미만	(172)	0.0	0.6	9.9	36.6	52.9	0.6	89.5
	50억 미만	(177)	0.0	0.0	14.7	35.6	49.7	0.0	85.3
	100억 미만	(76)	0.0	0.0	14.5	32.9	52.6	0.0	85.5
	300억 미만	(61)	0.0	1.6	9.8	32.8	55.7	1.6	88.5
	300억 이상	(14)	0.0	0.0	21.4	28.6	50.0	0.0	78.6
종업원수	5인 미만	(127)	0.0	0.8	11.8	36.2	51.2	0.8	87.4
	10인 미만	(124)	0.0	0.0	12.1	37.1	50.8	0.0	87.9
	50인 미만	(206)	0.0	0.5	12.1	34.0	53.4	0.5	87.4
	100인 미만	(27)	0.0	0.0	7.4	33.3	59.3	0.0	92.6
	100인 이상	(16)	0.0	0.0	37.5	25.0	37.5	0.0	62.5
업력구분	5년 미만	(203)	0.0	0.0	13.3	33.0	53.7	0.0	86.7
	5~10년 미만	(113)	0.0	0.0	11.5	34.5	54.0	0.0	88.5
	10~15년 미만	(63)	0.0	0.0	15.9	38.1	46.0	0.0	84.1
	15~20년 미만	(30)	0.0	3.3	10.0	33.3	53.3	3.3	86.7
	20년 이상	(91)	0.0	1.1	11.0	38.5	49.5	1.1	87.9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10억 미만	(268)	0.0	0.4	15.3	34.0	50.4	0.4	84.3
	10~50억 미만	(173)	0.0	0.0	7.5	39.3	53.2	0.0	92.5
	50억 이상	(59)	0.0	1.7	15.3	27.1	55.9	1.7	83.1
업종	제조업	(347)	0.0	0.3	11.5	35.2	53.0	0.3	88.2
	도매 및 소매업	(49)	0.0	2.0	10.2	32.7	55.1	2.0	87.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	0.0	0.0	13.2	43.4	43.4	0.0	86.8
	기타	(51)	0.0	0.0	21.6	27.5	51.0	0.0	78.4



발행인 강 석 진

편집인 전략규제혁신실

발행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주 소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전화 : (055) 751-9283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